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어지식 영역 학습활동의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 중학생을 대상으로 -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룬 희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어지식 영역 학습활동의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 중학생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채영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룬 희

김륜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목 차

Abstract	iv
I. 들어가기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이전의 연구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방법	6
II. 맞춤법 교육에 대한 검토	13
1. 현행 한글 맞춤법	13
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13
나. 한글 맞춤법의 변천사	16
다. 한글 맞춤법의 구성 원리	18
2.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	20
III.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단원의 맞춤법 교육으로의 활용.....	27
1.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법 교육의 내용과 구성	27
2.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현행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35
가. 교육 내용상의 문제	35
나. 교육 방법과 구성상의 문제	46
3. ‘국어지식’ 영역 단원의 활용 방안 검토	52
가. 교육 대상이 되는 한글 맞춤법 조항 선정	52
나. ‘국어지식’ 영역 단원과 맞춤법 교육의 연계 방안	57

IV.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활동의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65
1. 7차 교육과정의 제시하는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	65
2. 맞춤법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활동의 개선 방안	67
3. ‘국어지식’ 영역 단원을 통한 맞춤법 지도의 실제	69
가. 1-2학기 2단원 (1) 음절과 어절, 낱말	70
나. 2-2학기 2단원 (1) 낱말 형성법	75
다. 3-1학기 4단원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78
라. 3-1학기 4단원 (2) 음운의 동화	82
마. 3-1학기 4단원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85
바. 3-2학기 5단원 (2) 품사의 특성	89
V. 결론	94
참 고 문 헌	98

표 목차

<표 1> 중학교 국어, 생활국어의 국어지식 영역 관련 단위	8
<표 2>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 학년별 내용 분포 ...	10
<표 3> 유형별 맞춤법 오류 발생 비율	22
<표 4>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 교수·학습 내용	28
<표 5> 제7차 교육과정의 맞춤법 관련 내용	29
<표 6> 중학교 교과서 내의 맞춤법 단위	31
<표 7>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낱말의 형태	37
<표 8>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띄어쓰기	40
<표 9>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문장 부호	42
<표 10> <한글 맞춤법> 조항별 교육 방안목록	56
<표 11> 맞춤법과 연계 가능한 국어지식 영역 단위 목록	58

Method of teaching Hangul Orthography through improvement of the domain of
korean Knowledge's learning activities
- research in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

Ryun Hui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a teaching method for the Korean spelling system in association with the area of knowledge on the Korean language in a bid to help improve the spelling skills of middle schoolers.

Students start to learn about the spelling system on a full scale in middle school, and their spelling skills last throughout their lives with little changes. Whe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spelling education, there appeared something wrong with that. The curriculum didn't deal with the spelling rules in a sufficient manner. The textbooks were devoid of separate units about the spelling system,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spelling rules were ambiguous.

Another serious problem was that the spelling system was taught just in a unit without being related to other areas including knowledge on the Korean language that w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pelling system. And only the kind of learning activities that called on learners to correct the incorrect words of the given sentences was presented instead of handling the spelling system properly.

Given the problems with the spelling education, the spelling rules that middle schoolers have to learn were selected in this study in order for them to

acquire every required spelling rule in middle school, and how to teach the selected rules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units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was explored. The existing learning materials were reorganized, and lesson plans were mapped out to insert the spelling rules in existing textbooks to let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on the Korean language and spelling rules at the same time.

Finally, teaching plans that deal with the spelling system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knowledge area were presented, and how to perform the revised learning activities in each unit was suggested in detail.



I. 들어가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수업시간 활동을 개선하여 중학생의 한글 맞춤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집단행동의 중요 요소로,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인 것까지 사실상 의사소통 없는 사회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언어이다. 그런데 언어는 시대나 지역, 계층의 차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 성격이 강해 새로운 말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은 소멸해 간다. 따라서 한 사회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규범을 만들어 사회 구성원끼리의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사회가 사용하는 지역어 중에서 ‘표준어’를 정하여 그 언어 규범을 표준화한 ‘맞춤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준어가 입말을 중심으로 언어를 표준화한 것이라면, 맞춤법은 표준어를 글자로 적는 방법을 표준화한 것이다. 즉 맞춤법은 말을 글로 옮기는 데 따르는 기준과 약속을 정해놓은 것인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올바른 맞춤법 사

용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며, 따라야 할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중들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맞춤법은 곧잘 무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대학 교육을 마친 이들 사이에서도 맞춤법 오류는 심심찮게 확인된다.(김정태,2004) 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 과정 내에서 맞춤법 교육이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가를 의심해 볼만한 일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에서 맞춤법 교육이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하다.¹⁾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선택과목²⁾으로 문법 과목이 마련되어있지만 입시위주로 돌아가는 학교에서 늘 다른 과목에 밀려 문법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사실 그리 없다.³⁾ 결국 맞춤법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중들의 맞춤법 오용실태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맞춤법 교육이 효과적이지

1) 초등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에 대해서는 3.가 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을 동일한 전체 목표 하에 학년별로 수준의 차이만 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놓고 고등학교 2학년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심화된 과목을 학교마다 선택하여 수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7년 2월에 개정 · 고시된 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국어 생활’을 폐지하고 심화 선택 과목으로 ‘매체 언어’를 추가로 설정하여 지금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의 여섯 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관규(2000)에서 새롭게 ‘매체 언어’가 설정되기 이전의 심화 선택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문사회 과정일 경우 문학은 필수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문학을 제외한 과목을 2,3개 정도 가르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선택된 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이 29%, 작문 28.6%, 독서 24.9%, 화법 2.5%, 문법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법의 경우는 가르칠 교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인 체계화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문법 과목은 국어과목의 주요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기에 충분한 문법 지식과 교육할 기술을 갖춘 교사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현행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문법 과목은 단위수를 줄여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법 과목에 포함된 맞춤법 교육은 두말 할 것이 없다.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언중들이 맞춤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까지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교육의 힘이 필요함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수-학습방식을 보완·수정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사용 능력 향상을 꾀하는 새로운 지도 방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먼저 한글 맞춤법 교육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짚어 보며 이론적 고찰을 거친 후에, 이 연구에서 다룰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방법 체계를 세운 후에 그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맞춤법 교육 현실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이전의 연구 검토

맞춤법에 맞는 바른 표기에 대한 문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제정 이후 여러 번 재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문제로 끌어들이 검토하려 한 것은 1989년 한글 맞춤법의 4차 개정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나타난다.

김귀옥(1984)은 한글 맞춤법의 4차 개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유형별 자료를 만들었다. 소리, 형태, 부록 규정, 표준말에 관한 것으로 유형을 나눈 이 자료는 한글 맞춤법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본다.

유승혜(1988)는 고교생 문장에서 발견되는 문법적 오류를 비롯한 표기와 어휘의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의 작문과 문법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연계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맞춤법과 바른 표기에 대한 지도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호정(1990)은 1988년 고시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맞춤법 오류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때 오류의 종류를 한글 맞춤법의 열개에 따라 음운론적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 통사론적 오류, 규정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여 교정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후 오류 분석에 큰 틀을 제시하였다.

이주영(1998)은 기존 실태 연구들의 결과와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현행 중학교 맞춤법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학교에서 맞춤법 지도를 맞춤법 한 단원이 아닌 여러 단원에 걸쳐 가르치게 하는 내용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애경(2002)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한글 맞춤법의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 지도에 수준별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이 단 4주에 걸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인 학습 효과를 검증해 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정태(200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실제 작문에서의 맞춤법 상의 오류를 확인하여 그를 통한 맞춤법에 대한 의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미 국민공통기본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임에도 맞춤법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당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맞춤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만 해도 표준어와 맞춤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에 임했던 이승주(1994), 맞춤법의 예외 및 허용 기준

에 대해 다룬 김태준(1997), 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를 파악한 이진성(2001), 객재용(2001)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어문 규정에 대한 인지실태를 다룬 박덕유(2003)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최근까지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태조사 연구들이 있어 왔다.⁴⁾

지금까지의 맞춤법 연구들은 현행 한글 맞춤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맞춤법 사용의 실태를 조사한 경우나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실태 조사와 그 분석에 치우쳐 지도 방안은 나아갈 방향의 제시나 제안에 그치거나,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즉 다음에 이어질 연구로 방법상의 문제를 보류해 두거나 고전적인 방법의 응용, 혹은 컴퓨터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 도구의 적극 이용을 권장하는 데서 그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그것을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과서 내용과 구성상의 문제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 성공적인 맞춤법 교육이란 학습자들이 맞춤법의 원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맞춤법을 지켜 언어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 거기에 맞는 노력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여기에 주안점을 둔 지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맞춤법의 실태에 관한 연구나 오류 분석은 최근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굳이 여기에 더해 새로운 실태 조사를 첨부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4)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오류 실태에 관한 연구는 김귀옥(1984)로부터 시작해 이승주(1994), 정범순(1999), 박선희(2000), 김유정(2000), 최인주(2003), 이송월(2004), 이윤희(2006), 박정아(2007) 등 꾸준히 많이 연구되어 왔으므로 이 정도로 생략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맞춤법 자체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맞춤법 지도에 관한 연구는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다루도록 한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그 심화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국어지식 영역 관련 단원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에서 앞으로 다뤄질 내용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6학년에 해당하는데 ‘자모음의 구별, 표준 발음법, 어순’과 같은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함께 지도되고 있다.

맞춤법 교육으로는 저학년 단계에서 ‘바른 문장 부호의 사용’과 ‘바르게 발음하기’와 같은 내용을 지도하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표준어에 대해서만 다룬다.⁵⁾ 이 부분만을 보면 결코 균형 있는 내용체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표준어의 바른 발음을 비롯해 기타 문법 요소들은 이후의 맞춤법 교육을 위한 기초 형성에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때의 맞춤법 교육이 내용 수준상 언중들에게 혼란을 겪게 하는 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5)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언어 규범’ 항목은 다음과 같다.

2학년	·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3학년	·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5학년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알기 ·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 사용하기
6학년	·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기, ·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 지니기.

여기서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의 국어지식 영역 체계에서는 일부 국어지식 영역을 아예 다루지 않을뿐더러 맞춤법을 포함하여 국어지식의 각 영역들이 다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학’ 영역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⁶⁾ 이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심화 과정에서는 ‘문법’ 과목이 따로 선택사항으로 주어지지만 현재 ‘문법’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드문 상황이다.

즉, 고등학교 과정은 국어 지식 영역만을 위한 수업시수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으로서 교육과정상 본격적인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늦은 감도 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연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결국 맞춤법에 관한 교육은 사실상 중학교 단계에서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읽기 지문으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국어지식’ 영역을 ‘쓰기’ 영역과 함께 전부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 ‘국어지식’ 관련 단원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6) 고등학교의 국어지식 영역 관련 단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육과정		관련 단원	주요 내용
본질		상8. 언어와 세계	①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 문학
		하1. 국어가 걸어온 길	②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 듣/읽기
이해와 탐구	음운	.	
	낱말	하3. 함께하는 언어 생활	③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 말하기, 듣기
	어휘	.	
	문장	상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④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 말하기, 듣기
탐구	의미	.	
	담화	상3. 다양한 표현과 이해	⑤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 말하기, 듣기
		상4. 바른말 좋은글	⑥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쓰기
태도		상4. 바른말 좋은글	⑦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쓰기
		하7. 전통과 창조	⑧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쓰기, 문학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맞춤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단원이다.

<표1> 중학교 국어, 생활국어의 국어지식 영역 관련 단위

교육과정		학년 학기	관련 단위	주요 내용
본질		[국어] 7-1	6. 언어의 세계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
		[생국] 8-1	3. 국어의 언어 적 특징과 음운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생국] 9-1	6 남북한의 언어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나아갈 방향
		[부록] 북한어 알기	북한어의 어휘 설명과 남한말과의 비교	
이해 와 탐 구	음 운	[생국] 8-1	3. 국어의 언어 적 특징과 음운	음운의 개념, 단모음과 이중 모음, 자모음을 비교 하며 음운 체계표 완성하기
		[생국] 9-1	4. 음운의 변동	음절 끝소리 규칙, 음운의 동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
	단 어	[생국] 7-2	2. 낱말과 형태 소	음절과 어절, 낱말, 형태소의 개념과 구조
		[생국] 8-2	2. 낱말 형성법 과 국어의 관 용어	어근과 접사의 개념, 단일어와 복합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합성어 형성 방법
		[생국] 9-2	5. 품사의 종류	품사의 종류와 각각의 특성 알기
	어 휘	[생국] 7-1	4. 국어생활의 반성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의 개념과 기능 알기
		[생국] 8-2	2. 낱말 형성법 과 국어의 관 용어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 알기
	문 장	[생국] 8-1	6. 바르게 쓰기	문장 구성요소와 어순의 특징, 높임 표현, 시간 표 현, 부정 표현, 문장 호응관계, 어색한 표현 고치기
		[생국] 9-2	2. 문장의 구조	문장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문장의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성분, 중의적 표현 알기
	의 미	[생국] 7-2	5. 낱말의 의미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알고 구분하기
	담 화	[생국] 8-2	5. 발화의 기능 과 표현	발화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상황과 듣는이를 고려 한 발화하기
	국어 의 규범	[국어] 9-1	2. 중심내용 파 악하기	표준어와 방언의 의미, 표준어의 규정 조건 및 기 능과 가치, 방언의 종류와 가치
[생국] 9-1		2. 바르고 정확 하게 쓰기	표기법,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쓰임 기능 알기	

태도	[부록] 7-2	1. 띄어쓰기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과 그 실례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기의 기본 원칙과 모음, 자음 표기 일람
	[부록] 9-1	1. 한글 맞춤법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2. 간추린 표준어	표준어 3항, 5항, 6항, 8~12항, 14항, 16~18항, 25~26항에 대해 다룸
	[생국] 7-1	4. 국어생활의 반성	은어, 비속어, 유행어, 불필요한 외국어나 외래어의 사용 반성, 잘못된 통신어의 문제점
	[생국] 8-1	6. 바르게 쓰기	말의 중요성, 사라져 가는 문학 작품 속의 우리말, 구어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부록] 9-2	2. 바꿔 써야 좋은 말들	일본어의 영향, 조사 ‘의’의 부적절한 사용, 한자어와 우리말 이중 사용 문제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체계는 좀더 심도 깊은 본격적인 문법 지식을 익히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는 난이도와 학습량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국어의 이해와 탐구’의 각 분야를 두루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하려 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에 비해 ‘국어의 규범’과 ‘태도’ 영역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 역시 쉽게 눈에 띈다.

특히 ‘국어의 규범’ 영역에서는 한글 맞춤법 원리를 거의 부록으로 넘기고 있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시수의 부족으로 학습 활동도 전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할 때, 부록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결국 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져 제대로 교수-학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 학년별 내용 분포

학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심화 문법
							1	2	1	2	1	2	상	하	
본질	×	×	×	×	×	×	○	×	○	×	○	×	○	○	○
음운	○	○	×	×	×	×	×	×	○	×	○	×	×	×	○
단어	×	×	○	○	○	×	×	○	×	○	×	○	×	○	○
어휘	×	×	×	○	○	×	○	×	×	○	×	×	×	×	○
문장	×	○	○	○	○	×	×	×	○	×	×	○	○	×	○
의미	×	○	×	○	○	○	×	○	×	×	×	×	×	×	○
담화	×	○	○	×	○	○	×	×	×	○	×	×	○	×	○
언어규범	×	○	○	×	○	○	×	×	×	×	○	×	×	×	○
태도	○	×	○	○	×	×	○	×	○	×	×	×	○	○	○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학년에 비해 전 과정을 다루고 있고, 또 학습자의 학습수준 면에서도 초등학교나 더욱 심화된 학습을 요하는 고등학교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범위에 있어서는 <표1>에 제시된 국어 지식 영역 단원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단 맞춤법 교육과의 본격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표준어’와 관련되는 ‘발화’를 제외한 생활국어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으로 제한 짓고,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분은 국어지식 영역이 주가 되기보다 읽기의 한 지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배경지식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나.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에 따라 맞춤법 교육의 중요성을

일개워 현행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국어지식’ 영역 교육 과정에 따른 학습활동의 내용 재구성과 그 지도 방안에서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현행 맞춤법 교육에 대해 검토해 본다. 1절에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 초점을 맞춘다. 한글 맞춤법의 근본을 얹으로써 이를 토대로 하는 맞춤법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맞춤법 사용과 그 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글 맞춤법>의 핵심,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절충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 <한글 맞춤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과 그 현행 <한글 맞춤법>의 구성 원리를 짚어 보았다.

2장 2절에서는 1절에서 제시된 맞춤법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은 이 연구와 같은 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맞춤법 사용의 실태와 제7차 국어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내용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 또 맞춤법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들을 짚어보며 맞춤법 교육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기틀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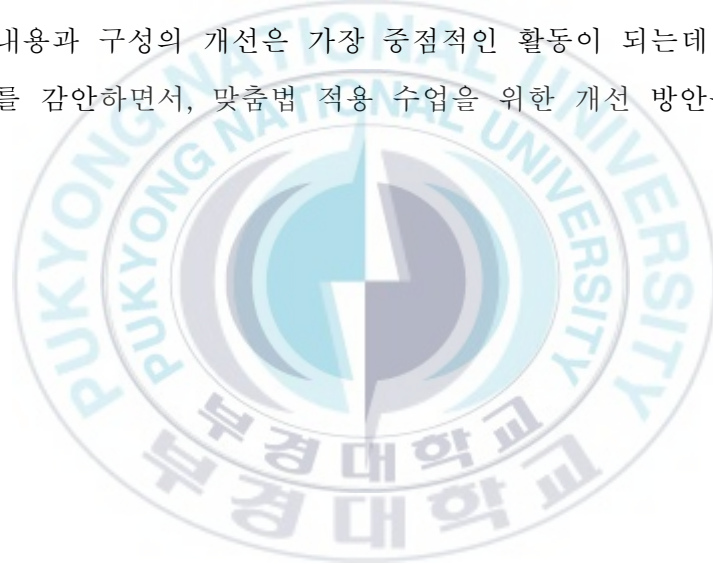
3장에서는 앞 장에서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범위에 속하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이 맞춤법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지 분석, 검토해 볼 것이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맞춤법 교육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구성되어 있는지, 또 맞춤법의 지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2절에서는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행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그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로 나누어 짚어 본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각 국어지식 영역 단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3절에서 검토하겠다. 여기서

는 일단 국어지식 영역 단원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 뒤, 그것이 맞춤법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탐구하고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4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이자 논의의 주제가 되는 학습활동의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의 지도 방안을 적극 제시하도록 한다.

4장 1절에서는 먼저 7차 교육과정이 제안하는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 교육과정의 의도를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다. 2절에서는 한글 맞춤법 교수·학습의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고, 3절에서 이를 적용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의 실재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 학습활동의 내용과 구성의 개선은 가장 중점적인 활동이 되는데 단원마다의 내용 차이를 감안하면서, 맞춤법 적용 수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현행 맞춤법 교육에 대한 검토

1. 현행 한글 맞춤법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맞춤법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든 언중들의 바른 맞춤법 사용에 있으므로,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위해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맞춤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원리로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맞춤법’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 ‘표기법(表記法), 정서법(正書法), 철자법(綴字法)’ 등이 맞춤법과 동의어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주 세세한 곳까지 따져 본다면 이들이 완전한 동의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⁷⁾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맞춤법 이론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을 ‘우리말의 표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글이란 문자 체계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범’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언중들이 <한글 맞춤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7) 여기에 대해서는 김문창(1994), 연규동(1998), 민현식(1999) 등의 연구가 있다. 굳이 정의하자면 ‘표기법’은 글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구어를 적는 방법의 총칭, ‘정서법’은 구어를 올바르게 적는 방법, ‘맞춤법’은 ‘철자법’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 자모음을 엮어 글자를 짜맞추어 이루는 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리’와 ‘형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글자의 발음과 표기가 일 대 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중들은 어떤 것이 바른 표기인지 헷갈리게 된다. 이것은 한글이 소리의 모습을 표기하는 ‘표음주의’와 뜻을 표기하는 ‘표의주의’를 적절히 조합한 언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⁸⁾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갈등 사이에서 생긴 맞춤법 오용 현상은 요즘 학생들이 글쓰기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통신상의 글쓰기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글쓰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인터넷 통신상의 대화 모습

예문> A : 오늘 생일이라고 케이크 받아썸 ^^
 B : 오~ 추카추카~
 C : 조켰따 ㅠㅠㅠ 나두 먹고 시퍼~
 A : 밤에 먹으면 살만 찌넹하 지금 먹고 오께~
 B : 얼릉 가따 오삼~

*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

예① 공부열씨미하고이써? 난진짜공부안댄다언 능보고강자야게써~	예② 오늘머하고놀지?밥먹 고영화보고시퍼,노래방 가고시퍼?니가정해쥬~
--	--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매체상의 언어들은 최근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초기의 통신언어들이 발음 경제상의 이유를 들어 소리나는 대로만 쓰거나 음운을 축약해 쓰던 형태에서 나아가, 이제는 자신의 의도를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8)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표음문자’이자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것이 근본원칙이나, 독해의 편의를 고려해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Ⅱ.1.다. 한글 맞춤법의 구성 원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음운을 늘리거나 강한 발음의 자음을 쓰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발음을 사용해 존재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어 표기하는 모습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는 비공식적인 글쓰기나 일상 대화에도 대거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 현상을 살펴보면 이것이 모두 ‘표의주의’보다 ‘표음주의’를 따르려 하는데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살아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 번에 독해가 되지 않는 글자들은 모두 소리내어 발음해보았을 때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⁹⁾

이러한 상황은 <한글 맞춤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일상에서 맞춤법을 인식하며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맞춤법을 내면화하는 데에도 큰 방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굳이 맞춤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학생들에게 어째서 맞춤법을 공부해야 하며, 맞춤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맞춤법 교육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현행 <한글 맞춤법>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힘겨루기 과정을 겪어야 했다. 표음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편리함을 넘어 한글이 표의주의와의 절충을 표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학생들에게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글 맞춤법>의 변천사와 그 구성 원리를 짚어본 후,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9) 이들이 ‘소리나는’ 대로에 가깝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일단 통신이나 휴대 전화라는 제한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다. 통신상에서는 ‘쓰기’를 통해 사실상 ‘말하기’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좀더 구어에 가깝게, 그리고 빠르게 쓸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는 제한된 공간 안에 글자수를 빨리 채워넣으려다 보니 띄어쓰기는 아예 생략되고 음소도 최대한 줄여 쓰는 형태가 되었다. 그것이 경제적이며, 전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 논의가 아니므로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양상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나. 한글 맞춤법의 변천사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몇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는 음절의 끝소리에 8개의 받침만이 올 수 있다는 팔종성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조선시대에서는 사실 한글이 거의 쓰이지 않았고, 개화기에 도달한 조선말에 이르러서야 언중들 사이에 한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까닭에 그 사이에는 공식적인 규정 없이 존재해 왔다. 개화기에 와서는 한글 사용의 증폭에 따라 맞춤법의 정비도 필수 과제가 되었고 이후 활발한 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변천사 연구의 목적은 현행 <한글 맞춤법>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현행 <한글 맞춤법>의 형태가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알기 위함에 있으므로,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제정에 개정을 거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조선어학회에 의해 제정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터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10월, 조선어학회가 조선총독부의 압박 가운데 ‘조선어 사전편찬회’를 결성하고 3년간 연구 끝에 공표한 것으로 철저한 표의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인쇄기술상의 문제를 포함한 시간 절약의 경제성을 들어 자모를 풀어써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용언의 활용이 복잡한 한글의 특성과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더욱 생각한 끝에 한글은 자모를 모아쓰는 형식이 되었다. 독해의 편이를 감안하는 것은, 표의주의 표방의 가장 큰 이유이다.

<한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이후 대폭적인 변화 없이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수정·보완되었다. 이 통일안은 3개 항, 각론 7개 장, 6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후의 맞춤법은 형태주의¹¹⁾에 보다 철저하려 한 행보였다. 몇 차례의 개정¹²⁾을 거쳐 해방 이후 1946년, 몇 가지 띄어쓰기의 ‘다만’ 항을 수정한 3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정안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1989년 3월 1일, 국어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4차로 개정하여 문화교육부 고시로 공포된 것이 현행 맞춤법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인데 실질적으로 광복 후 첫 국정 맞춤법 규정인 셈이다. 하지만 국정 맞춤법이라 해도 거기에 대한 비판 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도 더 나은 한글 맞춤법 사용을 위한 방안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¹³⁾

이렇게 한글의 맞춤법이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의주의를 중요시해 온 것은 문자란 ‘소리의 시각적 표시’라는 점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뜻을 나타내는 데 더 치중하는 표의주의는 형태소를 고정시키게 되므로 표음주의보다 독서에 훨씬 능률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의 구성 원리와 함께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10) 총론에서 제시한 3개 항은 다음과 같다.

- 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 2항 : 표준말을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 쓰는 서울말로 한다.
- 3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11) 맞춤법에서, 하나의 개념을 일관된 형태로 표기한다는 원칙. 즉 낱말이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같은 낱말이라면 언제나 같게 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2) 1937년 1차 개정 때에는 1936년에 발표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따라 각 항의 용어와 용례들은 새롭게 수정하였다. 이후 1940년의 2차 개정에는 통일안의 이름은 ‘마춤법’에서 ‘맞춤법’으로 고쳤다.

13) 맞춤법의 변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은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납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문제이다. 맞춤법 사용의 문제가 발견되어도 쉽게 수정할 수 없는 이유는 맞춤법이 앞서도 말했듯 한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약속을 수정한 것인 만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함이 마땅한데, 사실 <한글 맞춤법>은 개정 된지 20여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언중들이 바뀐 맞춤법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일이 없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연령대에게서는 예전 맞춤법과의 혼동 때문에 생긴 맞춤법 오류도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 점 역시 한글 맞춤법 사용의 한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나 이 연구의 주 논의와는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 면에서 동떨어진 논의이므로 여기서 접어 두도록 한다.

다. 한글 맞춤법의 구성 원리

<한글 맞춤법>은 모두 제6장 57항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3항으로 이루어진 제1장 1항에서 맞춤법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로 <한글 맞춤법>의 대상과 기본 원리를 밝히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한글 맞춤법>은 지역적·사회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입말을 통일하고 규범화한 표준어를 바르게 적는 법을 이르는 것이다. 즉 제1항은 그 대상을 ‘표준어’로 하여 적는 법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발음법을 따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여기에 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한글이 음소문자임을 중시한 것으로 곧 표음주의를 따를 것을 말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단지 <국어 어문 규정집>(1997)의 해설에 참고하여 글자의 원형을 밝혀 쓴다는 의미로 파악하도록 하겠다.¹⁴⁾ 이것은 표의주의의 입장이므로 한글은 상충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글자란 빨리 뜻을 파악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용이한 의미파악을 중시하였음을 나타낸다.

앞서 제시되었지만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글 맞춤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글로 글자를 쓰면, 소리나는 대로 써서 그 뜻이 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입말과 글말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

14) <국어 어문 규정집>(1997)에서는 이 구절을 ‘실질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기’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하여 적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단어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간단히 ‘원형을 밝혀 적는다’로 요약하여 다루도록 한다.

것이다. 때문에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이 더 붙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 올바른 맞춤법 사용 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경우에 소리나는 대로 적고, 또는 원형을 밝혀 적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름해 볼 수는 있다.

먼저, 한 형태소이면서 발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리나는 대로 쓴다. 하지만 한 형태소이지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적기도 하고 원형을 밝혀 적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선택하여 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 동화, 구개음화, 거센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와 같은 항목은 반드시 변동이 일어나는 항목으로, 발음을 잘못할 염려가 없으므로 원형을 밝혀 쓴다.

반대로 모음조화가 된 단어나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 등과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변동하는 단어들의 경우 변동된 형태대로 쓰지 않으면 발음을 잘못하거나 규칙 용언과 혼동이 되어 잘못 읽힐 우려가 있으므로 변동된 소리대로 쓴다. 이 외에 변동이 규칙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대로 쓴다.

또한, 복합어의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원형을 밝혀 쓰고, 시간이 지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거나 의미가 바뀐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그 외 접사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접사가 쓰인 파생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쓰고, 생산성이 낮은 접사가 쓰인 파생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결국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조화되어 있다. 이는 음소문자로서의 한글의 이점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언중의 독해력 또한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익힐 기회가 없다면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을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한글의 어법’ 그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대다수인데다 언어자체의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헛갈리는 단어들로 인해 학습자들은 맞춤법을 어렵게만 느끼고 있다.

2.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

‘맞춤법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이 연구와 같은 논의에 있어 가장 원론적인 문제이다.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제하에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 맞춤법 학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필요성을 절감해야 효과적인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춤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생들의 사용 실태에 따른 실생활의 필요성에서부터 맞춤법을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가. 맞춤법 사용의 실태에 따라

언중들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맞춤법 오용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에서 거론되고, 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언중들의

맞춤법 오용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맞춤법 사용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박덕유(2003)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 100문항에 대해 전체적인 정답률과 연령별, 학력별로 나눈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어문규정의 원리를 익히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오류들이 많음이 드러났다. 이는 적절한 맞춤법 교육만 있다면 맞춤법 오류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사항은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의 정답률이 57.1%이고 다음이 중졸(55.8%), 고졸(55.0%)로, 교육받은 경험이 반드시 교육적 효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김정태(2004)에서는 대학생들의 맞춤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8.6%)이었고, 이에 대해 맞춤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93%). 그리고 자신들이 느끼는 맞춤법에 대한 혼란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맞춤법 자체의 문제, 맞춤법에 대한 자신들의 자세의 문제, 맞춤법에 대한 제도적·정책적인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는 그들이 몸소 맞춤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맞춤법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부족했음을 항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신현선(2005)에서는 중·고등학교 남녀를 대상으로 맞춤법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문항의 정답률이 59.43%로, 40.57%라는 높은 오답률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모두 맞춤법 실력의 저조함을 나타냈다.

여기서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그 밖의 것’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점이 특징적인데, ‘구개음화’와 ‘된소리’를 적용한 문항이 그나마 80%의 정답률을 보일 뿐 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든 맞춤법 항목에 낮은 정답률을 드러내었다. 특히, ‘그 밖의 것’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저조한데, 이는 어떤 규칙성을 띤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년별로 정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리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정답률 차이가 약 1.4%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중학교 시절 학습자가 가진 맞춤법 오용의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부분이다.

황성현(2006)에서는 위호정(1990)의 맞춤법 오류의 분류를 따라 중학생들의 작문을 통틀어 맞춤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유형별 맞춤법 오류 발생 비율

오류 유형	빈도	비율
음운론적 오류	216	53.3%
형태음운론적 오류	143	35.3%
통사론적 오류	34	8.4%
규정적 오류	12	3.0%
합계	405	100%

이 때 음운론적 오류란 표준발음을 몰라서 빗어지는 오류를 말한다. 형태음운론적 오류는 표준발음은 구사할 수 있으나 단어의 기저형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이다. 통사론적 오류는 단어의 통사적 기능의 혼동에서 생겨난 오류이며, 규정적 오류는 정서법 규정이 너무 어렵거나, 변동된 규정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음운론적 오류와 형태음운론적 오류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는 위의 결과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맞춤법 오류가 문법규칙과 관련된 데에서 옴을 보여주고 있다.

나.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맞춤법 교육은 학습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쳐 스스로 만족할 만큼 교육 되어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속에서 그 근거와 필요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창의적 한국인의 육성’, 그리고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¹⁵⁾’에 중점을 두고 제시된 안이다. 후자인 개선되어야 할 내적 문제로 제시된 안 중 하나는 국어과 교육 목표의 체계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성취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목표 제시 구조와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꼽았다.

그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성취 목표로 설정하고, 국어 교육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한 성취 수준을 국어과의 교육 목표로 설정, 제시하였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다만 학교급별 성취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15)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국어과 교육 목표 체계 문제
- (2) 국어 교육의 내용 선정 준거와 기준 문제
- (3) 교육 내용의 중복 제시와 수준의 범위 문제
- (4) ‘방법’항에 제시한 지침의 실제적 유용성 문제
- (5) ‘평가’항에 제시한 지침의 실제적 유용성 문제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성취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¹⁶⁾이 있다고 보았다. 먼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포괄하여 ‘전문’으로 제시하고, 인지적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가’에서는 지식 교육의 목표를, ‘나’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에서는 정의적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정의적 태도 형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결국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 지식 영역에서도 언어 사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법 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실생활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맞춤법 교육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은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체계를 ‘국어의 본질’과 ‘국어의 이해와

16)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지적 영역: 이론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다룬 수업목표
- 정의적 영역: 어떤 사상(사실, 이론, 공법, 기술 등)에 대한 학습자의 주의, 관심, 흥미 태도, 의식, 가치, 신념 등의 변화와 관계되는 내용이 담긴 수업목표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¹⁷⁾ 맞춤법 교육이 속한 '국어 규범과 적용' 범주는 그 이름에서부터 각종 언어 규범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그 지식을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논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수준 높은 사회 활동에는 거기에 걸맞은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준 높은 언어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얻은 고차원적인 언어능력은 그들의 고등 정신능력을 신장시키며, 고도의 지적 능력을 연마하도록 돕는다.

논리적 사고력은 관찰·분석·비교·추리의 순환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문법은 언어의 규칙으로서, 언어 자료를 관찰·분석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는 연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가는 활동인데다 그 대상이 언어인 까닭에 사고력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 문법적인 지식을 총괄하여 실전에서 사용하는 맞춤법 교육에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갓가지 문법 규칙들로 이루어진 고도의 언어 능력인 맞춤법을 학습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은 고도의 언어 능력이 수반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

17) 국어지식의 교육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 어 지 식	· 국어의 본질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국어에 대한 태도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징 - 국어의 변천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	

의 고등정신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학습자들이 인간으로서 본래 지닌 고도의 지적 능력을, 맞춤법이라는 언어 사용 방법을 배우면서 확립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단원의 맞춤법 교육으로의 활용

1.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법 교육의 교과서 내용과 구성

바람직한 맞춤법 교육 방법을 모색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맞춤법 교수·학습 내용과 그 구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 상위인 국어 지식 영역이 맞춤법 교육의 내용을 포함, 총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국어지식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 속에서 맞춤법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골라내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학습하였을 때에만 학습자가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교육과정 내용 범주화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¹⁸⁾, 국어지식 영역 역시 그러하다.

18)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화는 다음의 원리를 적용한다.

- **지식**(인지적 측면) :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기능**(인지적 측면) :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태도**(정의적 측면) :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표4>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 교수·학습 내용

학년	교육과정 내용	관련 교과 단원
7 학 년	1.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관계를 안다.	국어 [1-1] 6. 언어의 세계
	2. 음절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1-2] 2. 낱말과 형태소
	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1-1] 4. 국어 생활의 반성
	5.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생활국어 [1-2] 5. 낱말의 의미
	6. 담화의 구성을 안다	생활국어 [1-1]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생활국어 [1-2] 4. 국어 생활의 반성
8 학 년	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생활국어 [2-1]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생활국어 [2-2]
	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6. 발화의 기능을 안다.	생활국어 [2-2]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7.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생활국어 [2-1] 6. 바르게 쓰기
9 학 년	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생활국어 [3-1] 6. 남북한의 언어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생활국어 [3-1] 4. 음운의 변동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생활국어 [3-2] 5. 품사의 종류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생활국어 [3-2] 2. 문장의 구조
	5.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생활국어 [3-1]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4>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맞춤법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
다. 총 21개의 내용 중 맞춤법에 관한 내용은 불과 2개에 지나지 않는다.
국어지식 영역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적을 뿐더러, 가르쳐야
할 맞춤법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에도 턱없이 적은 양이다.

맞춤법에 관한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제7차 교육과정의 맞춤법 관련 내용

	[9-국어지식-(6)]	[9-국어지식-(7)]
교육과정 내용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내용 선정의 이유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학 습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학습자가 정확한 국어사용을 잘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맞춤법에 맞는 국어사용의 중요 성과 방법 알기. · 우리말의 맞춤법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 맞춤법에 맞는 국어사용의 의미, 방법, 필요성, 장점 알기 · 맞춤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학습 활동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 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어를 정확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를 위해, 맞춤법에 맞지 않게 쓴 글을 읽고 그 글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게 한 다음, 이러한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토의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의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평가하게 한다.	맞춤법에 맞는 국어사용이 자연 스럽게 몸에 배도록 생활 속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우리말 사용의 실태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게 하여, 맞춤법에 맞 는 국어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이 내용은 태도 형성과 관 련된 것이므로 활동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어 맞춤법에 맞는 국어 사용이 일상화 될 수 있게 한다.
기 본 활	· 맞춤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맞춤법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 맞춤법을 효과적으로	·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을 써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한다.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쓰는 것과

수 준 별 학 습	동	활용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맞춤법에 맞는 국어사용의 필요성을 확실히 한다.
	심 화 활 동	• 다른 사람의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 이를 통해 우리말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실제의 언어 사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맞춤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 국어 맞춤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토의한다. - 이를 통해 맞춤법 지식을 실제의 국어사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9학년 국어지식(6)의 경우 ‘지식과 기능’이라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맞춤법의 필요성을 ‘확실한 의사전달 · 표현 능력 향상’에 두고 있다. 그리고 맞춤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맞춤법에 담겨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 맞춤법을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명시하고, 그 방법으로서 ‘문법 지식의 활용’과 ‘오류 수정 후 스스로 평가하기’를 들고 있다.

9학년 국어지식(7)은 태도를 몸에 익히는 ‘정의적 측면’에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의적 측면이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인다. 내용 선정의 이유를 ‘정확한 국어 사용’을 위한 것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9학년 국어지식 (6)에서 표현 능력의 향상을 선정 이유로 꼽은 것의 하위 항목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습내용이나 학습 활동 역시 거의 비슷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다. 단지, 정의적 영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학습자의 경험이나 태도에 좀더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국

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규범과 적용 범주를 병렬적으로 나열해놓긴 했으나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각 범주 간, 교육 내용 간 상호 교섭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내용에서 학습내용을 ‘맞춤법 사용의 중요성 알기, 맞춤법 사용 방법 알기, 우리말의 맞춤법 알기, 맞춤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는 방법 알기’로 묶어놓은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법에 맞추어 한 편의 글을 쓰고,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고치고, 맞춤법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는 국어 맞춤법의 특징에 대해 토의할 것을 권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실제로 교과서에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맞춤법 단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6> 중학교 교과서 내의 맞춤법 단원

단원	생활국어 [3-1]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학습 목표	·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안다. ·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단원의 길잡이	· 필요한 까닭과 맞게 쓰는 연습을 강조한다. · 맞춤법의 정의 :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 · 우리말의 맞춤법 : 낱말 형태, 띄어쓰기, 문장 부호. · 맞춤법의 중요성 : 맞춤법에 맞아야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 활동① 실력 알아보기. 1) 맞춤법에 맞는 표기에 V표 체크하기 2) 띄어 써야 할 곳에 V표를 하고, 다시 써 보기 3) 평소 자주 보는 간판에서 맞춤법이 틀린 것을 찾아 맞게 써 보자. 4) 낱말의 형태를 바르게 밝혀 쓰지 않은 부분을 찾아 표시해 보자.

소 단 원 1	* 활동정리 : 소리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낱말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기의 약속이다. ◆ 활동②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 생각해 보기. - 글을 소리내어 읽어 보고, 띄어쓰기해야 할 곳에 V표를 해 보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 보자. * 활동정리 : 맞춤법 규정에서는 띄어쓰기를 “낱말은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을 쓸 때에는 이 규정을 지켜 가며 바르게 써야 한다. ◆ 활동③ 문장 부호의 쓰임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1) 문장 부호의 이름과 의미를 적어보고, 용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보자. 2) 문장 부호가 있는 대화글과 문장 부호가 없는 대화글을 읽어보고, 문장 부호가 없는 대화글에 알맞은 문장 부호를 넣은 후 문장 부호를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적어 보자. * 활동정리 : 글을 쓸 때에는 문장 부호에 맞게 써야 한다. 문장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면, 읽는 이가 글쓴이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활동① 문장 부호에 대하여 1) □안에 알맞은 문장 부호를 써 넣어 보고, 그 문장 부호를 사용한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2) 글에서 필요한 곳에 알맞은 문장 부호를 넣어 보자. ◆ 활동②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고쳐보자. 1)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글에서 찾아 고치고 누가 더 많이 찾았는지 견주어 보자. 2) 한 학생의 받아쓰기 답안지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치고 그 이유를 맞춤법 규정에 따라 설명해 보자. ◆ 활동③ 맞춤법에 유의하며 받아쓰기를 해 보자. 1)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말을 잘 듣고, 낱말의 형태와 띄어쓰기에 유의하며 받아 써 보자. 2)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말을 잘 듣고, 받아 써 보자. (대화문 포함) ◆ 활동④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1) 조사 계획 세우기 2) 항목별로 맞춤법 오류를 조사해 보기 (항목 : 낱말의 형태 오류, 띄어쓰기 오류, 문장 부호 오류, 기타 비표준

	어, 부정확한 낱말, 어색한 표현 등) 3) 조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보자. 4) 맞춤법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하고, 발표해 보자.
보충 · 심 화	◆활동① 제시된 띄어쓰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쳐 보자. 1)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 2)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3)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활동② 문장 부호의 사용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1) 제시된 여러 가지 문장 부호에 맞는 이름과 의미를 연결해 보자. 2) 다음 글에서 문장 부호가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활동③ 다음 글의 음영으로 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원고지에 써 보자.
	◆활동④ 다음은 국립 국어원의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오는 맞춤법에 대한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는지 살펴보자. 1) 위의 질문 중에서 3개를 골라 답을 해 보자. 2) 국립 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춤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발표해 보자.
단원 정리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에 맞게 낱말의 형태도 바르게 적어야 하고, 띄어쓰기도 바르게 해야 하며, 또 문장 부호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 배운 맞춤법에 관한 지식을 일상의 글쓰기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자.

위의 표의 내용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올바른 맞춤법 사용이 주는 의미’나 ‘맞춤법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하여’라는 국어과의 전체적인 목표와 맞물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단원에서는 ‘맞춤법 사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맞춤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맞춤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맞춤법 규정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맞춤법 규정에 대해 배우는 방법 면에서 교육과정은 ‘문법 지식의 활용’과 ‘오류 수정 후 스스로 평가하기’ 라는 항목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중 오류 수정을 통해 맞춤법을 익히는 방법은 단원의 전체 구성을 통틀어 행해지고 있지만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는 맞춤법의 원리를 익혀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이므로, 문법 지식 활용의 부재는 근본적인 맞춤법 사용 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정리하면,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항목들을 대부분 포함하려 애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그 수준이나 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은 내용들을 한 단원 안에 모두 담으려고 한 탓에 내용 선정 기준과 범위가 불투명해진 문제점이 보인다.

다음으로 맞춤법 단원의 내용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과서에서는 맞춤법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총칙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서 : 낱말의 형태 밝혀 적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서 : 띄어쓰기]

부록 ‘문장 부호’

→ [교과서 : 문장 부호]

총칙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를 제외한 두 항과 부록의 ‘문장 후보’의 세 가지 규정을 맞춤법 교육의 토대로 삼고 있음을 단원 학습활동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은 ‘단원의 길잡이’에서부터 ‘소단원’을 거쳐 ‘보충·심화’ 활동

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기준이나 순서, 범위의 제한 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 절에서 교과서 분석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2.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현행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가. 교육 내용상의 문제

(1) 교육과정 내용의 미흡한 분량

먼저, 교육 과정 자체에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총 21개항으로 이루어진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 중 맞춤법에 관한 항목은 불과 2개항이다. 국어지식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였을 때 생기는 음운, 단어, 어휘, 문장, 의미, 담화, 언어규범의 7가지 분야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맞춤법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고, 다른 영역들이 다시 그 속에서 세분화되어 제시되는 반면, 맞춤법은 하나로 묶여서 통째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6장 57항에 ‘붙임’과 ‘다만’ 항목, 그리고 부록으로 이루어진 <한글 맞춤법>은 그 양이 결코 적지 않다. 이를 중학교 3년 과정 동안 단 한 단원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맞춤법

사용 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다 보니, 학년별로 점차 수준을 높여 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적용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내용이 포괄적인 탓에, 고등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과 중학교의 맞춤법 교육이 어떤 연관선상에 있으며 내용과 수준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¹⁹⁾

교육과정의 내용선정 단계에서 맞춤법 조항을 ‘소리나는 대로 적기’, ‘형태 밝혀 적기’, ‘띄어쓰기’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분리하여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맞춤법을 항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맞춤법의 구성과 체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불확실한 맞춤법 조항 선정 기준

이것은 ‘과연 중학교 과정에서 맞춤법 조항의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교과서에는 한글 맞춤법의 조항이 어떠한 순서나 규칙 없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학습활동마다 수준차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하나의 맞춤법 조항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는 등, 교과서에 예시로 등장한 맞춤법 조항이 어떤 기준에 의해 중학교 과정 맞춤법 학

19)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의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 내용 중 맞춤법 관련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 영역	내용	수준별 학습
10 - 국어 지식(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기본] 문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10 - 국어 지식(7)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심화]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9학년 맞춤법 단원의 교육과정에서 ‘맞춤법’이라는 단어가 ‘문법’으로 바뀌어 ‘맞춤법에 맞게’가 ‘문법에 맞게’라는 식으로 바뀌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활동 역시 9학년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습에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도 교육과정에서도 아무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맞춤법 조항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교과서에서 학습내용으로 선정한 <한글 맞춤법>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낱말의 형태

한글 맞춤법 조항	예시 (O / X)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형 밝혀 적기)	·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요? / 만나요? · 삶은 달걀 / 살른 달걀 · 들어갔다 / 드러갔다 · 썰어져 / 써러져 · 돌아 / 도라 · 그렇게 / 그러케 · 살아 / 사라 · 닦으며 / 다끄며 · 찍어 / 찌거 · 먹으려고 / 먹을려고 · 흔들리지 않고 / 흔들리지 안코 · 시험을 치렀다 / 칠었다 · 천연 기념물 / 처년 기념물 · 흑두루미 / 흑두르미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억,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 백분율 / 백분률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씹쓸하다 / 씹슬하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본뜻에서 떨어진 것 -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드러난 광대뼈 / 들어난 광대뼈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	· 있음 / 있슴 · 얼음 / 어름

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떡볶이 / 떡볶기 • 맑음 / 말금 • 있듯이 / 있드시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 놓치고 / 놓히고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오뚝이 / 오뚜기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일찍이 / 일찌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훗날 / 후날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아니하다 - 않다)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므로 ‘않’이 되면 안 됨	• 담배를 / 담배를 안 피움 않 피움
제35항 모음 ‘ㄴ, ㄷ’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ㅓㅓ’/ ‘ㅕㅓ’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불임 2] ‘외’ 뒤에 ‘-어, -었-’이 어울려 ‘괘, 괘ㅓ’으로 될 적으로 준 대로 적는다. (본말) 되어 (준말) 돼	• 8만 리쯤 / 8만 리쯤 되지 돼지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가히 / 가이 • 깨끗이 / 깨끗히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으)르게 ㄴ : -(으)르께	• 만들어 줄게 / 만들어 줄께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심부름꾼 ㄴ 심부름꾼 ㄱ 곱빼기 ㄴ 곱배기	• 심부름꾼 / 심부름꾼 • 곱빼기 / 곱배기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맞춤 / 맞춤

ㄱ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뺨치다(다리를 뺨친다, 멀리 뺨친다.)	ㄴ 마추다 빼치다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너머 :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 쪽 또는 그 공간 넘어 : 동사 ‘넘다’에 어미 ‘-어’가 연결된 것 붙이다 : 우표를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부치다 : 힘이 부친다, 편지를 부친다.		• 너머 / 넘어 • 붙이다 / 부치다

<표7>은 중학교 교과서 맞춤법 단원의 ‘단원의 길잡이’부터 ‘소단원’을 거쳐 ‘보충·심화’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맞춤법 조항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제1장과 관련되어 묶인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에서 두 항,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서 여섯 항, 제5장 ‘준말’에서 두 항, 마지막으로 제6장 ‘그 밖의 것’에서 일곱 항 중 다섯 항이 나타났다.

이 중 제5장인 ‘준말’에서는 직접적으로 맞춤법 규정과 관련되는 것을 묻기보다는 언중들이 자주 틀리는 말을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날말의 형태’ 밝혀 적기에서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과 제6장 ‘그 밖의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빈약한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개별 단어의 올바른 모습 찾기에 불과한데, 이는 맞춤법의 원리를 학습하기 보다 단어 수준에서 오류 수정에 급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⁰⁾

20) 중학교 3-1학기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2007)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가 맞춤법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사가 학생들이 (올바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주거나 비슷한 예를 충분히 들어 주어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갖가지 비슷한 예들을 제대로 구별해 쓸 수 있도록 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 한글 맞춤법임을 생각할 때, 이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글 맞춤법 자체에 ‘다만’이나 ‘붙임’과 같은 항목이 붙어 있는 것은, 비슷한 단어들이 경우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맞춤법 규정에 대한 설명 없는 과연 바른 맞춤법 교육을 이루어졌을지 그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

교과서에 나타나있는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조항	예시 (O / X)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면 안 돼요 / 그러면안돼요 · 전 구간 매표기 / 전구간매표기 · 더 큰 효과 / 더큰 효과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 / 해결할 사람은 그 밖에 없다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될 수 있는 대로 / 될수 있는대로 · 헤쳐 나갈 수 / 헤쳐나갈수 ·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요? / 이사온지얼마나됐지요 · 입학할 때 / 입학할때 · 사랑을 할 거야 / 사랑을 할거야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세 살배기 / 세살배기 · 햇볕 한 줌 / 햇볕한줌 · 열 살 난 어린이입니다 / 열살난어린이입니다 · 차 한 대 / 차한대 · 연필 한 자루 / 연필한자루 · 신 세 켤레 / 신세켤레 · 첫 번째 / 첫번째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삼백십억 삼만 이천칠백 / 삼백 십억 삼만 이천 칠백 · 239억 3654만 2912 / 239억3654만2912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은 띄어 쓴다. <검, 내지, 대, 등, 밧, 등등, 등속, 등지>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책상, 걸상등이 있다. · 청군 대 백군 / 청군대백군
제3절. 보조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 공부하지 않고 / 공부하지않고 · 떠내려가 버렸다 / 떠내려가버렸다 · 먹을 만하다 / 먹을만하다.

허용한다.	· 있음 직한 이야기 / 있음직한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떡볶이 대학 김밥과 / 떡볶기대학 김밥과

띄어쓰기의 조항은 이 단원내에서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는 편이다. 제46항과 제50항을 제외한 항목이 모두 나오고 있고, 특히 보충·심화 활동에서는 맞춤법 조항과 문제 풀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 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준 상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 몇몇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은 예외적인 띄어쓰기 조항에 가까우므로 암기에 목표를 두고 본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품사의 구별에 대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다. 이 또한 교과서 구성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띄어쓰기는 품사과락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까닭에 한 단원 내에서 거의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부호는 더욱 간결하게 나타난다.

<표9> 교과서에 제시된 한글맞춤법 조항 - 문장 부호

부록 - 문장 부호	
I. 마침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II. 쉼표	반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III. 따옴표	큰따옴표(" "), 겹낫표(『 』), 작은따옴표(' '), 낫표(「 」)
IV. 묶음표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
V. 이음표	줄표(—), 붙임표(-), 물결표(~)
VI. 드러냄표(‘ , °)	
VII.안드러냄표	숨김표(XX, OO), 빠짐표(□), 줄임표(……)

교과서에서는 위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문장 부호가 의미, 용례 알기를 포함하여 오류 수정하기와 문제 풀이까지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제시되지 않은 문장 부호들인데, 그 쓰임의 빈도수를 볼 때 왜 빠져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다. 가운뎃점, 쌍점, 빗금, 묶음표, 이음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장 부호들이다. 이중에서 가운뎃점이나 쌍점, 빗금 등은 그 용도가 간단하고 중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이음표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묶음표는 그 구분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왕 문장 부호에 대해서 다룬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맞춤법 단원에 등장한 맞춤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비해 ‘낱말의 형태’는 무작위한 맞춤법 조항들이 협소한 예시들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맞춤법 교육의 목적이나 학습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힘들고, 그 때문에 교육 목적이나 학습목표가 턱없이 넓은 범위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 단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각 소단원의 학습목표도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맞춤법 규칙도 체계적으로 명확히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광범위한 맞춤법 조항을 한 단원 안에 다 실어놓고 공부할 수는 없다. 교과서에는 부록을 통해 ‘간추린 한글맞춤법 규정’을 실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부록을 활용할 만한 시간이 수업시수 속에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를 활용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명확히 하여, 적정 수준을 체계를 갖추어 가르치는 일이 맞춤법 교육의 급선무이다.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할 맞춤법 조항의 선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3) <한글 맞춤법>에 대한 부족한 설명

중학교 3학년 1학기 2.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에서는 맞춤법에 대해 ‘맞춤법이란,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 부호’ 부분에서 각각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와 올바른 표기를 표로 제시한 후, 글을 쓸 때에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 가며 써야 하는데 이 약속을 자세히 규정해 놓은 것이 맞춤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소단원으로 넘어가면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잘못 쓴 예들은 나열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도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소리나는 대로 적되 낱말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고 했으면, ‘어느 경우에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야 문장의 의미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단원 활동으로 들어가면 ‘낱말의 형태 밝혀 쓰기’는 ‘맞춤법에 맞게’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고 낱말의 개별로 제시된 맞춤법 오류를 수정해 보게 한 후, 다음의 말로 활동을 정리한다.

<정리> 소리를 글자로 적을 때에는 낱말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기의 약속이다.

앞서 여러 가지 낱말들을 바른 표기로 고치는 활동만을 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엔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다. 단원의 길잡이에서 제시된 ‘소리나는 대로 적되’가 사라졌을 뿐인 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글자에는 그 본래의 형태가 있으므로, 그것을 알고 적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분명 한글에는 ‘소리나는 대로’ 쓰는 글자도 있다. 올바른 맞춤법 사용에 필요한 기본 능력, 어떤 경우에 표음주의를 택하고 어떤 경우에 표의주의를 택하는지 학생들이 알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맞춤법 실력은 늘 수 없다.

이런 식의 학습은 결국 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불철저한 임시대책 밖에 되지 않는다. 맞춤법 규칙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쉽게만 풀어놓으려 한 것이 오히려 불완전한 이해를 불러와, ‘낱말의 원형’을 알아야 한다는 암기에 대한 압박감만 남긴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맞춤법의 정의와 총칙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시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수준이나 흥미를 문제 삼기엔 이미 이 단원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거의 끝단계이며 이후 다시 한 단원을 맞춤법에 할애하는 시간은 고등학교 심화 수업인 문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무리가 있다.

실제로 언중들은 맞춤법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다. 바른 맞춤법 사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단어 차원이 아닌, <한글 맞춤법>의 본모습을 수업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생활국어’에 한정한 국어지식 교육

초등학교의 경우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생활 국어에 함께 제시되던 국어지식 교육 내용이 중학교로 오면 <표1>에서 보듯 ‘국어’ 교과서에 한 단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단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중학교 과정에서도 ‘국어’와 ‘생활국어’로 분권을 통해 지도와 학습의 전문화를 꾀하려한 의도 하에 구성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읽기·문학, 그리고 듣기·말하기·쓰기·국어지식으로 내용이 나뉘지면서 7차 교육과정에서 ‘총체적인 학습’을 내걸고 영역간의 통합을 추구하던 모습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내용을 다루면서 조금씩 기초적인 문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행된 방법에서도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로 다루지 않게 되면서 국어지식 분야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보이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국어지식 영역에도 다른 영역을 끌어들이는 부분 없이 그저 국어지식 영역을 다른 데 끌어넣는 데만 신경을 쓴 때문으로, 본질적으로 영역간의 통합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표현, 이해가 함께 묶이거나 상호 관련되어 묶이는 경우는 있어도 국어 지식이 다른 영역과 묶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국어지식 영역에서도 맞춤법 교육이 차지할 공간은 더욱 줄어들고 만다.

국어 생활의 기초가 되는 문법 교육도 적극적으로 다른 영역들과 함께 총체적인 학습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맞춤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맞춤법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영역상 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여, 국어 교육이 본질, 원리, 태도, 실제 중 실제에 최종 목표를 둔 것처럼 모든 영역들의 최종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문법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맞춤법 규정의 경우는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어휘력 증가와 함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국어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 있다. 지금 제7차 교과서에서는 단원마다 한자단어를 모아 ‘한자 공부’를 따로 구성해 놓았는데, 맞춤법의 경우도 충분히 이처럼 틀리기 쉬운 개별 단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살려낼 수 있다.

읽기와 맞춤법의 통합은 독서를 하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맞춤법에 대해 좀더 주의하며 글을 살피는 태도 역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 방법과 구성상의 문제

(1) 문법 지식과 격리된 맞춤법 학습

중학교 맞춤법 교육의 교육 방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맞춤법 학습이 문법 지식과 동떨어져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낱말의 형태를 밝혀 가며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은, 품사를 분류할 줄 알고 단어의 형태소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것이기에 맞춤법은 문법 지식과 격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수많은 맞춤법 오류들이 단어의 기본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는 맞춤법 교육이 국어지식 영역 내에서 문법 지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문법적 지식이라는 기초 없이 이루어진 맞춤법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왔지만 중학교 과정 중 단 한 번 등장하는 맞춤법 단원은 온전히 고립되어 있다. 맞춤법 뿐 아니라 모든 문법 지식에 기초가 될 ‘품사의 종류’ 단원은 9학년 2학기에나 등장하며, 기타 ‘바르게 쓰기’나 ‘낱말과 형태소’, ‘낱말 형성법과 관용어’, ‘음운의 변동’ 등의 단원에서 맞춤법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맞춤법 단원인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에서 맞춤법을 설명하며 이들 규칙 -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인한 규칙이나, 단어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변화 등 - 을 다시 일일이 들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예 맞춤법 단원에서 빠져 있음을 <표7>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즉 ‘소리에 관한 것’은 맞춤법에서 따로

다를 것도 없이 9학년 1학기 4.‘음운의 변동’단원으로 미루어 놓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맞춤법의 원리 학습을 통해 맞춤법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국어지식 영역 교수·학습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문법 지식과 맞춤법 교육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2) 오류 수정에 치중한 맞춤법 학습

맞춤법을 다루는 단원의 학습활동은 시종일관 맞춤법 오류 수정에 치중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이 소단원 활동에 들어서자마자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고치는 활동에 어김없이 ‘맞춤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맞춤법 조항의 원리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가 없는 것은 특히 원리 설명이 필요한 ‘낱말의 형태’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활동이 끝까지 오류 수정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며 공부해야 할 학습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류 수정 활동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 있다.

소단원(2) ‘맞춤법에 맞게 쓰기’의 활동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④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1. 모둠을 구성하여 조사 계획을 세워 보자. (1) 모둠 구성하기 (2) 조사 대상 중에서 하나를 정해 보자. (신문, 잡지 등) 2. 아래의 항목별로 맞춤법 오류를 조사해 보자. * 낱말의 형태 오류 : * 문장 부호 오류 : * 띄어쓰기 오류 : * 기타(비표준어, 부정확한 낱말, 어색한 표현 등) : 3.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 보자. <조사 내용 분류표> · 조사 일시 : 200 년 월 일 ~ 월 일
--

· 모둠 이름 :		· 조사 대상	
분 류		조 사 내 용	
날말의 형태 오류		나에 살던 고향은 → 나의 살던 고향은	
띄어쓰기 오류		맛이 좋아 다시 찾는곳 → 맛이 좋아 다시 찾는 곳	
문장 부호 오류		잘못 없어 라고 말했다 → “잘못 없어.”라고 말했다.	
기타			

4. 우리 주변의 맞춤법 실태를 조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가? 각자의 소감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해 보자.

위의 활동을 성취하려면, 먼저 해당 글자가 맞춤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오류인지 분류해낸 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어야 한다.

여태껏 낱말의 예시로 공부해 온 맞춤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얼마만큼 맞춤법 오류를 분류해 내고, 그 이유와 본 형태를 밝혀 낼 수 있을까? ‘잘못 쓴 글자 찾기’ 단계라면 모르겠지만 앞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던 기타 항목인 ‘비표준어, 부정확한 낱말, 어색한 표현 등’이 포함되면서 각종 오자(誤字)들이 낱말의 형태 오류와 섞여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무리한 학습방법이다.

맞춤법을 배울 때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법 지식과 연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맞춤법 오류 수정하기에 급급해서는 이 원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규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 방식이 오히려 단원이 끝나갈수록 어려운 내용이 되어 흥미와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맞춤법 오류 수정하기는 맞춤법 사용의 연습 단계이지,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맞춤법 사용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보충·심화 활동의 내용과 구성의 문제

맞춤법 교육은 지식, 사용, 태도 면의 목표가 각 학년마다 그 수준에 맞게 교수·학습되고 생활화되어 평소 맞춤법 사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길 수 있도록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맞춤법 교육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불확실하다보니 단원의 구성 내에서도 무리한 활동이 요구되거나 순서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해당 단원의 보충·심화 활동²¹⁾을 살펴보자.

일단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의 보충·심화 활동은 수준형²²⁾으로,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활동①과 ②를, 심화 활동을 할 사람은 활동③과 ④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보충·심화 활동①은 띄어쓰기의 조항을 제시해 놓고, 이를 연습해 보는 활동이다. 오히려 본문에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순서상의 아쉬움이 남지만, 소단원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을 다룸으로써 보충·심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②는 문장 부호의 사용에 대한 것으로, 문장 부호의 이름과 설명을 연결해 보고, 또 예시문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고쳐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소단원에서 정의와 용례를 공부한 후이므로, 그것을 재정리해보고 연습해 보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띄어쓰기, 문장 부호에 대해 적절한 보충·심화 학습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단원의 중심이 되는 ‘낱말의 형태’에 대한 보충학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충분히 난이도를 고려하여 복잡한 맞춤법 조

21) 보충·심화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중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학습 활동이므로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지도해 줄 필요는 없다. 단, 학생들의 수행을 지켜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개별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22)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보충·심화 활동은 수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준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보충 또는 심화를 하고, 선택형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기호 또는 취미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

항은 다시 확인하며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구성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심화학습으로 구성된 활동③은 ‘맞춤법에 맞게 써 보기’인데, 이것을 원고지에 써야 한다. 원고지 사용은 학생들에게 띄어쓰기를 좀더 의식하며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맞춤법 단원을 총체적인 학습 아래 쓰기 영역과 연결해 공부할 때도 원고지 쓰기는 바른 글쓰기를 익히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내용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글을 고쳐 쓰는 것은 맞춤법보다 그쪽에 더 신경이 쓰이게 만들어, 심화 활동이라고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낱말의 형태보다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원고지 표기법에 더 신경이 쓰이는 구성이다.

이어지는교수님의한말씀한마디가명하니안자있는우리의가슴으로나라와
꽃다문장을대할때에는쉽표하나마침표하나소홀히하지마라

이	어	지	는	교	수	님	의	한	말	씀	,	한	마	디
가	명	하	니	있	아	있	는	우	리	의	가	슴	으	로
날	아	와	꽃	혔	다	.								
	“	문	장	을	대	할	때	에	는	쉽	표	하	나	,
	침	표	하	나	소	홀	히	하	지	마	라	.”		

낱말의 형태에 대해서는 단어의 원형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단어(앉아, 날아와, 꽃혔다)와 ‘이’, ‘히’의 구별이 어려운 단어(소홀히)가 하나 등장하여 역시 새로운 예시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두 번째 심화학습인 활동④에서는 갑자기 문제 수준이 높아진다. 세세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나 쉽게 보아선 학생들이 품사를 구별할 수 없는 단어의 띄어쓰기 문제 등, 보통 학생들이 잘 틀리는 항목이긴 하지만 이 단원의 학습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니 ‘위의 질문 중에 답을 해 보자’라고 해도 예시를 암기해 온 학생들에게 앞에서 배운 예시와 다른 단어가 나올 경우,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게다가 2번 문제의 경우 ‘국립 국어원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춤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발표해 보자’라고 하였는데 결국 이는 수업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일뿐더러 이 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보충·심화’라는 이름 아래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보충·심화의 내용과 구성도 맞춤법 단원 자체의 무리한 구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니 맞춤법 단원에서 모든 걸 다루려고 하지 말고, 맞춤법에 대한 정의와 기본지식, 그리고 암기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맞춤법 사항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맞춤법 규정을 문법 지식과 연결시켜 그 원리들을 문법 지식을 교육하며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국어지식 영역의 단위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교육과정상의 문제와 교육과정이 교과서 안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교과서 내의 학습내용 선정과 지도방식상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교수·학습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거듭 고쳐나가는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한 방법으로 단원의 학습활동을 개선하려하므로 위에서 다룬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절에서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국어지식’ 영역 단원의 맞춤법 교육 활용 방안 검토

가. 교육 대상이 되는 한글 맞춤법 조항 선정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언중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은 원리만이 아니라 ‘다만’, ‘붙임’ 등을 포함한 예외 조항이 항시 존재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원리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글 맞춤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맞춤법 조항을 통째로 학습자들이 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각 조항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원리를 활용하여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즉, 하나의 규칙을 익혀서 많은 단어들을 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하나의 규칙이 하나의 단어에 적용된다면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된다. 사실상 암기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은 다양한 독서와 작문 경험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하는 방안에서 함께 익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바른 맞춤법 교육을 제시함에 앞서 <한글 맞춤법>의 어떠한 조항들이 교육 대상이 될지 부터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한 ‘가르칠 필요’가 있는 조항과 ‘암기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나누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 1절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 형태소의 변동을 들어 간단히 설명했는데, 교육대상이 되는 맞춤법 조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다루었던 형태소의 변동은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

일한 음운적 환경에 있는 어떤 형태소에도 적용되는 규칙을 ‘보편적 변동’이라 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는 변동을 ‘한정적 변동’이라고 한다. 또,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변동은 ‘필연적 변동’, 말할이의 의도나 발음 습관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임의적 변동’이라고 한다. 즉 임의적 변동은 원리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이 연구의 중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맞춤법의 원리를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나찬연, 2005).

- 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② 한 단어 속의 형태소에 변동이 일어날 경우
 - ㉠ 변동 유형에 따라
 - 보편·필연적 변동, 한정적 변동, 임의적 변동²³⁾
 - ㉡ 복합어에서 밑말의 확실성에 따라
 - 밑말이 분명하다면 원형을 밝혀 쓴다.
 - 밑말이 분명하지 않거나 밑말의 뜻에서 떨어진 복합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 복합어에서 접사의 파생력에 따라
 - 파생력이 강한 접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쓴다.
 - 파생력이 약한 접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23) 보편-필연적 변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구개음화, 거센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등의 문법규칙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변동을 하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적 변동 현상에는 모음 조화, 용언의 불규칙 활용, 매개 모음 없애기 등이 있다. 이들은 변동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지 않으면 발음을 잘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고 있다.

임의적 변동 현상은 ‘이 역행 동화나 끝소리 자리 옮기기 같은 규칙의 경우 원형을 밝히고, 원형과 변동된 형태 모두 다 바른 표기로 인정되는 경우로 반모음화나 단모음화, [(ㅎ)ㅏ]축약 현상이 있다.

①의 경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음과 원형이 같다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②의 경우에는 ‘보편-필연적’ 변동과 ‘한정적’ 변동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의적 변동의 경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개별 사항을 암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의 ㉠, ㉡은 원형을 확실히 알고만 있다면 따로 볼 필요가 없는 조항들이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중학생 수준에서는 그 원형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배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원형의 글자를 ‘올바른 글자’로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쓰도록 가르치면 충분하다. 거기에 소리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글자는 어떠한 경우인지 살펴 변화가 일어난 대로 쓸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의 조항들이 있다. 이 경우는 규칙을 따로 정해놓긴 했는데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실생활에서 구별해 쓰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한글 맞춤법> 의 제40항²⁴⁾, 제51항²⁵⁾, 제52항²⁶⁾이 대표적이다. 올바른 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원리가 다른 조항들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서 개별로 외울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원리보다는 ‘발음의 관습’을 인정하여 원칙 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소리대로 적는 표기의 경우에는 우

24)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25)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26)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리말의 표준 발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된다. 발음 교육도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법만큼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의 대다수의 조항들은 교수·학습할 가치가 있는 조항들이다. 다만, 임의적 변동에 해당하는 조항과 특별한 원리 없이 그렇게 써야하는 제53항, 제54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조항²⁷⁾ 외 몇몇 다만이나 불임에 존재하는 예외에서 제시하는 글자들은 굳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오류 수정과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이 늘 수 있는 부분이다. 암기와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맞춤법에서 가장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 원리에 적용되는 맞춤법 조항들을 다른 국어지식 영역의 단원과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다면 할당된 맞춤법 단원에서는 그 외의 맞춤법을 넓게 다룰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제공되는 맞춤법 조항은 그 원리가 되는 문법적 지식과 함께 구성되어 경제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수·학습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한글 맞춤법>을 중학교 과정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게 된다. 그것은 맞춤법이 국어지식 일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학교에서는 그것의 극히 일부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 학습하기에는 <한글 맞춤법>이 꽤 방대한 양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만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을 그 원리와 함께 배우며

27) 제53항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를 규정해 놓았다.

제54항은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접미사를 규정해 놓았다.

제55항은 두 가지로 구별하던 적던 ‘맞추다/마추다’, ‘뺨치다/빼치다’를 전자의 형태로 적을 것을 규정해 놓았다.

제56항은 ‘-더라’, ‘-딘지’를 경우에 따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해 놓았다.

제57항은 의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할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익히고, 맞춤법 단원에서는 중학생 학습자 수준²⁸⁾에서 암기하고 적용해야 할 규칙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글 맞춤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앞의 맞춤법 조항 검토를 통해 <한글 맞춤법> 조항 57개의 교육할 위치와 내용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한글 맞춤법> 조항별 교육 방안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맞춤법 조항	1항, 2항, 6항, 14항, 15항, 18항, 21항, 27항, 28항, 29항, 31항, 32항, 34항, 35항, 36항, 41항, 52항
‘맞춤법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맞춤법 조항	[띄어쓰기] 42항, 43항, 44항, 45항, 46항, 47항, 48항, 49항, 50항 [개별단어] 8항, 53항, 54항, 55항, 56항, 57항 [접미사 구분] ① ‘-이’/ ‘-히’ : 19항, 20항, 23항, 25항, 51항 ② ‘-거리다’, ‘-하다’, ‘-없다’ : 24항, 25항, 26항
중학교 이후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맞춤법 조항	된소리규칙(5항), 두음법칙(10항, 11항, 12항), 모음조화(16항), 보조사 관련(17항), 사동·피동 접미사(22항), 사이시옷(30항)
‘어휘’ 교육과 함께 다룰 수 있는 맞춤법 조항	[준말] 33항, 37항, 38항, 39항, 40항 [접쳐 나는 소리] 13항 [표준 발음 관련] 9항
기타	3항과 4항 ²⁹⁾ 은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표10>의 음영으로 된 부분이므로 여기에 속하는 맞춤법 조항을 가지고 국어지식 영역의 각 단원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8) 여기서 수준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중학교에서 다루는 국어지식의 내용의 범위와 관련된다. 즉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가의 여부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문법지식이 등장하는 항들은 기존의 교과서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여기에 속하는 조항들은 불가피하게 10학년 과정이나 심화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

29)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 ‘국어지식’ 영역 단원과 맞춤법 교육의 연계 방안

맞춤법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지식 영역과의 연계성이 요구된다. 단기간에 전부 학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고 규정도 복잡한 맞춤법을 국어지식 영역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이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된 맞춤법 규정을 바로 학습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어렵고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던 국어지식은 맞춤법으로 인해 더욱 생활에 친숙하게, 까다롭게만 여겨지던 맞춤법 규정은 그 원리를 알으로써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맞춤법 교육을 국어지식 영역과 연계해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먼저, 국어지식 영역 단원의 경우 앞서 <표1>에서 7학년에서 9학년에 이르는 단원을 모두 제시하였지만 여기서 맞춤법과 연계해 볼 국어지식 영역은 맞춤법의 원리 학습과 관련된 문법 지식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계하여 가르칠 맞춤법 조항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조항을 중학교 단계에서 다 학습하기에는 수업시수의 문제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수준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춤법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맞춤법 학습 이후에 배우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므로 교육 대상이 되는 맞춤법 조항을 기본으로 하되 중학교에서 다루는 문법 지식과 연계되어 학습 가능한 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11>

30) 그 중에서도 ‘품사의 분류’를 국어지식 영역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구성해놓은 단원배치는 꼭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맞춤법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이나, 이 연구에서는 그보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법 지식과 맞춤법 교육의 연결 고리를 찾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하나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과 같다. 본격적인 맞춤법 단원인 3학년 1학기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는 모든 맞춤법 조항을 포괄하고 있는 단원이어서 ‘맞춤법 연계’와는 동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이 표에서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맞춤법 관련 단원이란, 맞춤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단원이 아니라 내용상 맞춤법과 연계될 수 있는 단원을 뜻한다.

<표11> 맞춤법과 연계 가능한 국어지식 영역 단원 목록

학기	단원	맞춤법 조항
1-2	2. 낱말과 형태소 (1)음절과 어절, 낱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2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낱말 형성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3-1	4. 음운의 변동 (1)음절의 끝소리 규칙 (2)음운의 동화 (3)음운의 축약과 탈락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ㅌ’으로 적는다.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ㄷ’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왔/-었'이 어울려 '와/워, -왔/-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6항 모음 'ㅣ' 뒤에 '-어'가 와서 'ㅓ'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3-2	5. 품사의 종류 (2)품사의 특성	제14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9가지의 경우 생략)

이제 이 내용들이 기존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과 각 맞춤법 조항이 어떻게 관련 맺고 학습활동에 섞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연구해 보고, 4장에서 이를 포함하여 각 단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과 함께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2학기의 2. '낱말과 형태소' 단위에서는 음절, 어절, 낱말, 형태소의 개념과 이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문장에서 음절, 어절, 낱말을 분리해 내는 능력을 기를 것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법 규칙에 대한 단위인 만큼 무리한 내용은 없고 음절, 어절, 낱말, 형태소를 이해하고 형태소의 경우 그 종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문법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를 풀어쓴 말로 종류를 구분³¹⁾해 보게 하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단원은 1학년 단위이고 문법 규칙에 대해서는 처음 다루고 있는 만큼, 맞춤법과 연계할 때도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 먼저 총칙의 제1항,

31) 그 예로, 자립 형태소나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등의 용어를 '홀로 쓰일 수 있는 것', '홀로 쓰일 수 없는 것', '실질적인 뜻을 지니는 것', '문법적인 뜻을 지니는 것'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제2항은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틀이기도 하면서 이 단원의 내용과 관련되므로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제시될 수 있다.

소단원 1. 음절과 어절, 낱말

활동1-(1) 문장을 소리나는 대로 써 보자.

산에 눈이 온다. → 사네 누니 온다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 2-(2) 문장을 어절로 나누어 보자.

①가을이 / 되었습니다.

②참는 / 자는 / 복이 / 있다.

③ 미술관 / 옆에는 / 동물원이 / 있다.

④콩 / 심은 / 데 / 콩 / 나고 / 팔 / 심은 / 데 / 팔 / 난다.

이와 같이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마디를 어절이라고 한다. 어절은 띄어쓰기나 끊어읽기의 단위가 된다.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2학기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단원의 소단원 (1) ‘낱말 형성법’ 단원도 연결하여 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파생어, 합성어의 복합어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 알 것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그 요소로 ‘어근’과 ‘접사’가 등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접미사, 접두사의 규칙을 맞춤법 조항에서 함께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원은 아무래도 글자 표기의 옳고 그름 보다는 낱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므로, 다른 단원들에 비해 특히 조심하여 본래 취지에 중심을 두고 맞춤법 조항은 곁들이는 것임을 인식하며 교수·학습해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의 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과 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맞춤법 조항 3절과 4절을 합치면 19항부터 31항까지 총 13개항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여기에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

최대한 교과서에서 중학교 수준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시한 문법 규칙 내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서로 어울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단원(1) 낱말 형성법

활동③ 다음 낱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자.

- (㉠) 밤낮, 앞뒤, 물병, 벌판
- (㉡) 군밤, 뛰놀다, 벗어나다
- (㉢) 햇병아리, 햇보리
- (㉣) 넓이, 깊이, 집게, 베개

[맞춤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3-1학기 4. ‘음운의 변동’ 단원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동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을 각각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법 규칙은 여기에 맞추어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구개음화, 음운 축약 현상인 거센소리되기, 준말, 그리고 갖가지 음운 탈락 현상이 제시된다.

이 단원은 소리내어 말을 하면서 글자 표기와 발음된 소리가 달라지거나, 바뀐 발음의 형태대로 굳어진 글자 표기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단원인 만큼 맞춤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조항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단원(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그 이외의 받침은 이 7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런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맞춤법]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소단원(2) 음운의 동화

활동①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리켜 자음 동화라고 한다.

[맞춤법]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1. 본음으로 나는 것

승락(X) → 승낙 (O)	만란(X) → 만난(萬難) (O)
안령(X) → 안녕(安寧)(O)	분로(X) → 분노(忿怒) (O)
토논(X) → 토론(討論) (O)	오육십(X) → 오륙십(五六十) (O)

활동② 자음 'ㄷ, ㅌ'이 'ㄴ' 모음 앞에서 'ㄷ, 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ㄷ, ㅌ'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소단원(3) 음운의 축약과 탈락

활동①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소리나는 것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맞춤법]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왔/-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아/-어, -왔/-었'이 어울려 '와/워, -왔/-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6항 모음 'ㅣ' 뒤에 '-어'가 와서 'ㅞ'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활동②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아예 사라져 소리나지 않는 것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맞춤법]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 으로 적는다.

마지막으로 3-2학기 5. ‘품사의 종류’ 단원은 ‘단어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고, 우리말 아홉 품사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도 학습자들에게 암기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맞춤법에 관해서는 각 품사와 연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연결 지어 보고 단원을 마무리하며 함께 확인해 보는 정도로 족하다.

관형사나 부사의 경우 바른 맞춤법 표기에 대한 조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여기서 확인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한 단원 안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관형사와 부사의 개념과 특징을 바로 아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맞춤법 표기는 맞춤법 단원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소단원(2) 품사의 특성

활동②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그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4. 어간의 끝 'ㅌ, ㅍ'이 줄어질 적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6.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8. 어간의 끝 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9. 어간의 끝 음절 'ㄹ'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리'로 바뀔 적

활동④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조사라고 한다.

[맞춤법] 제14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2-1학기 6. ‘바르게 쓰기’ 단원도 맞춤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단원은 맞춤법을 포함하여 우리말의 어순, 호응 관계, 문법 요소 등을 포함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문장을 사용하게 하는, 전체적으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맞춤법은 그 개념만 바르게 알아두면 충분하므로 굳이 이 단원에서 억지로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단원 자체도 압축된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자칫 정의적 영역인 이 단원의 선정 의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Ⅳ.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활동의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1. 7차 교육과정 이 제시하는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맞춤법 교육에 대해 따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 국어과를 통틀어 총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영역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지식 영역의 경우 지식에 대한 설명보다는 탐구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생성해 내는 경험을 강조하되, 학습한 내용이 창조적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²⁾

즉, 한 사회의 언중들이 언어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어지식 영역의 역할이며, 맞춤법 교육은 언어의 규범,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역할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방법을 교육과정은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32)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어 지식을 지도하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도 국어 지식의 성격에 따라 지도 방법에 차이가 난다. 특히,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과 관련**을 맺을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국어 지식은 궁극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속에서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지식에 대한 지도는 설명보다는 여러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바르고 정확한 국어 사용을 위한 국어 지식 교육은 **언어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해 놓은 각종 규범이나 규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의 지식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는 않다. 단, 이것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며, 학습자 스스로 터득하는 탐구 학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지식을 실제 국어 생활로 연결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학습과 탐구 학습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내용이다. 총체적인 학습의 경우 국어지식 영역은 잘 활용되지 않음이 앞서 교과서 검토에서도 드러났다. 국어의 여섯 항목은 모두 ‘정확한 국어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맞춤법 학습의 경우에는 듣기·말하기와 관련하여 표준어 발음 문제, 읽기·쓰기와 관련하여 맞춤법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혹은 ‘학습자의 수준을 생각’하여 이러한 학습활동을 꺼리고 있는데, 국어지식 영역의 고립성은 총체적인 학습을 의식한 더 나은 방안을 통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특히 국어지식 영역에서 탐구학습 식의 학습활동을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제시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단계를 거쳐 문제 해결에 이르고, 이를 통해 지식을 터득하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학습활동의 경우 ‘정리’ 상자를 마지막에 마련해 놓았다.

맞춤법 교육 역시 원리 제시를 앞세우는 것을 극히 사리고 있으며, 귀납적 방식을 통해 원리를 체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맞춤법 단원에서는 경험을 먼저 제시하려한 점은 충실히 지키고 있으나 그것이 원리 터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안기지 않으면서 원리에 대한 이해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어지식 영역과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2. 맞춤법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활동의 개선 방안

이제 기존 학습활동을 개선하여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표11>에서 제시된 맞춤법과 관련된 단원이 그 대상이 된다. 각 단원마다 그 특성에 맞춘 맞춤법 학습 방안도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올바른 맞춤법 학습’을 위해 기본이 될 방법들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맞춤법 학습을 위한 수업의 큰 틀을 제시한 뒤, 3절에서 직접 수업 지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습활동의 개선에 따른 실효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먼저, 기존의 학습활동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전제되는 사항이 있다.

먼저, 현재 구성된 단원마다 특성에 따라 ‘음운의 변동’ 단원처럼 맞춤법과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연계된 맞춤법 학습의 비중도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에 보충하여 첨부하는 형태로, 본래의 단원을 의식하여 학습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한 단원만으로 도저히 모두 다룰 수 없는 맞춤법 학습을 연계 가능한 단원들에 분배하여 전체적인 맞춤법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이 기존의 단원과 어우러져야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학습활동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탐구학습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활동도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를 살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새롭게 학습활동을 구성할 때에는 그 방안이 얼마나 효율

적인 것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에 탐구 학습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 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확인해보는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통 탐구학습의 과정은 ‘①탐구할 문제의 정의, ②가설 설정, ③가설 검증, ④결론 도출, ⑤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경우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는 단계가 빠지거나 마지막에 원리를 유추해내는 단계가 빠지는 등 이 중 한 두 가지 단계가 누락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탐구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문법 규칙과 함께 맞춤법 조항을 익히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예시 자료 제공) → 문법 규칙 확인 → (틀린 맞춤법 자료 제공)
→ 문제점 발견 → 문제점 탐구 → 문법 규칙 확인 → (맞춤법 조항 제시)
→ 문법 규칙과 맞춤법 조항의 내면화

먼저, 학습자들은 본 단원의 학습활동에 따라 문법 규칙에 대해 배운다. 그 후 틀린 맞춤법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때의 예시자료는 문장이나 문단으로 구성된 것이 좋은데, 단어로 제시되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류를 발견한 학생들은 그것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 문제점을 인식해 낼 수 있다면 문법 규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후 맞춤법 조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고, 그것이 앞서 배운 문법 규칙에 의한 것임

도 확인시킨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시를 제시해 주면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맞춤법이 모두 타당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문법 규칙은 우리가 평소 쓰는 말속에 숨어있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식의 내면화는 이런 작은 발견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로, 가급적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과정중심의 맞춤법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위마다 이용가능성의 여부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맞춤법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모형 집단에 속하는 협동학습모형의 경우, 학습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교과에 대한 증대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구성원 간에 서로 역할모델이 되어주며 학습기능을 터득하고, 서로 힘을 합쳐 분담해 수행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든다.

맞춤법 학습의 경우 개별학습에서 어렵고 지루하게 느꼈던 것을 서로의 맞춤법 오류를 고쳐 주거나 바른 표기를 찾아보는 등의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을 통해 흥미를 돋우고 활발한 탐구 학습을 자극할 수 있다. 탐구학습이라 하여 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원리를 학생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체득한 지식과 같은 성취감과 그로 인한 내면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어지식’ 영역 단원을 통한 맞춤법 지도의 실제

앞 절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제 수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의 개선은 국어지식 영역 단원에 맞춤법과 관련한 항목을 잘 접목시키는 것이

주가 된다. 또 그 속에서 학습자들이 맞춤법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의 제안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제안들은 각각의 맞춤법 조항이나 문법 규칙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앞에서 살펴온 총 6개의 소단원이 어떻게 수업에 활용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1-2학기 2단원 (1) 음절과 어절, 낱말

(1) 수업 지도안

‘음절과 어절, 낱말’ 단원은 학생들이 문장을 나누어 보고, 낱말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음절, 어절, 낱말의 정의와 해설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 이렇다 할 문법 규칙을 배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총칙 1항, 2항, 41항과 같은 기본적인 맞춤법 조항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대단원명	2. 낱말과 형태소	소단원명	(1) 음절과 어절, 낱말	차시	1/5
학습 목표	① 음절과 어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② 문장에서 음절, 어절을 나눌 수 있다. ③ 문장이 음절과 어절로 이루어진 것에 유의하며 바른 표기 형태를 알아본다.				
학습 자료	교사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학생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출석	인사, 출석 점검	교사의 말을 경청하며 듣고 대답한다.	5분	동기유발 자료준비
	동기유발	우리 주변의 사물은 모두 더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 역시 그러함을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본다. -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라는 문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학습 목표 제시	PPT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며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함께 따라 읽는다.		

전개 1 활동 ①	탐구 학습	▶ 음절의 개념 알기 · 문장을 소리나는 대로 써 보게 함 · 음절의 개념 설명하기 · 문장을 음절로 나누어 보는 활동 - 소리나는 대로 나눈다. - 글자마다 나누는 학생도 있다.		10 분	학생들 에게 제공할 받아쓰기 예문을 포함한 예시 자료를 준비함
	내용 이해 · 확인	▶ 관련 맞춤법 교육 · 음절은 소리마디이므로 소리나는 글자모양대로 나누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에는 음절 모양대로 써서는 안 됨을 가르친다. ·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덧붙인다.	· 스스로 학습활동을 해결하는 데 힘쓴다.	3분	
	내용 이해 · 확인	▶ 음절의 구성 유형 알기 - 기존 학습활동과 다르지 않음. ▶ 어절의 개념 알기 ·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까? · 어절의 개념 설명하기 · 문장을 어절로 나누어 보는 활동 ▶ 관련 맞춤법 교육 · 어절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됨을 확인해 본다. · 띄어쓰기의 기본 규칙이 되는 조항을 알려준다.	· 문법 규칙과 맞춤법 조항의 정리 설명을 주의깊게 듣는다.	7분	
전개 2 활동 ②	형성 평가 통 한 내용 확인	· 음절과 어절의 개념을 복습한다. · 선생님이 불러 주는 문장을 음절대로 나누며 받아 쓴다. · 음절대로 쓴 문장을 바른 표기로 고쳐 본다. · 바르게 고친 문항을 어절 단위로 나누어 본다. · 선생님과 반 전체가 함께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리한다.	· 내용 정리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10 분	
정리	질의 응답 안내	· 질의응답 · 다음 차시 수업 안내 - 낱말에 대한 공부	·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하고 교사는 성의껏 대답한다.	3분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재구성한 학습활동에서는 기존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맞춤법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① 음절의 개념 알기

1. 문장을 소리나는 대로 써 보자.

산에 눈이 온다. → _____

하늘에 새가 날아간다. → _____

☞ 이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쓴 문장을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문장의 경우 ‘사V네V누V니V온V다’가 된다.

이 때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소리마디를 음절이라고 한다. 위의 문장들이 모두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는지 세어 보자.

2. 다음 문장을 음절로 나누어 보자.

넓은 들에 누렇게 곡식이 익어간다. → _____

산의 맑은 공기가 기분을 좋게 한다. → _____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총칙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한글은 그 발음을 충실히 살려 적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문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한 단어가 발음이 바뀌더라도 그 모습을 똑같이 표기하여,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음절은 소리마디이므로 소리나는 글자모양대로 나누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에는 음절 모양대로 써서는 안 된다. 글자의 형태는 소리와 늘 같지 않음을 명심하여 발음은 바로 하되, 표기할 때에는 올바른 글자형태를 늘 신경 쓰도록 한다.

실제로 음운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어째서 어느 단어는 소리와 형태가 다르고, 또 이를 구별해서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음운을 배우려면 글자의 소리값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소리와 형태의 분리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소리나는 대로 글을 쓰려고 했으나 틀린 발음으로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글자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활동 자체를 어려워 할 수도 있다. 활동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집중하지 않았다면 왜 멀쩡한 문장을 소리나는 대로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으로 바른 표기에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글자의 소리와 표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더해 바른 표기는 어떠한 것인지 늘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맞춤법 조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② 음절의 구성 유형 알기

음절의 구성 유형은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는 활동은 기존의 학습활동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③ 어절의 개념 알기

1. 다음의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어 보자.

가을하늘이푸르다. → _____
먹구름이끼더니비가온다 → _____

☞ 이처럼 문장은 몇 개의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마디를 어절이라고 한다. 어절은 띄어쓰기나 끊어 읽기의 단위가 된다.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 다음 문장을 어절로 나누어 보자.

폭설이내려서기차가늦게도착했다. → _____

어젯밤에슬픈영화를보고평평울었다. → _____

여기서가까운데맛있는음식점이있다. → _____

2.1 위의 문장들은 몇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어 보자.

2.2 위의 문장들을 띄어쓰기에 유의하며 끊어 읽어 보자.

‘어절’ 부분은 띄어쓰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띄어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각 ‘품사’에 대해 아는 것이 먼저겠지만 3-2학기에 위치한 품사에 대한 단원은 그 자체에서 다루는 품사의 학습만으로도 벅찬 감이 있어 띄어쓰기까지 다루기엔 무리가 있다.

1학년 때 ‘어절’에 대해 배우면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어절은 문장내의 단어별로 나누어짐을 익히면, 이후 의존 명사나 보조 용언 등 좀더 복잡하게 단어를 구별해 가면서도 띄어쓰기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품사 단원에서도 띄어쓰기 조항을 재확인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과 함께 ‘띄어쓰기’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국어 공부에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형성평가를 통한 내용 확인 및 정리

* 음절과 어절의 개념을 복습한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

* 형성평가지

① 불러준다 > 키가 작은 형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음절 :
- 바른 표기 :
- 어절 :

② 불러준다 > 푸른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는다.

- 음절 :
 - 바른 표기 :
 - 어절 :
- ③ 불러준다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음절 :
 - 바른 표기 :
 - 어절 :

먼저 음절과 어절의 개념을 복습한 후 선생님이 불러 주는 문장을 학생들이 ‘음절대로’ 나누어 받아쓴다. 이 과정에서 소리나는 대로 문장을 쓰게 되므로, 다음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를 바른 표기로 고쳐 보도록 한다.

바르게 고친 문항은 다시 어절 단위로 나누어 본다. 이후 선생님과 반 전체가 함께 답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개념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나. 2-2학기 2단원 (1) 낱말 형성법

(1) 수업의 방향

‘낱말 형성법’ 단원은 맞춤법과 연관시키기가 힘든 경우이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낱말 형성법과 관용어에 대해 가르쳐 어휘력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표현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문법규칙 단원이라기보다 ‘어휘력 신장’에 목표를 둔 어휘 단원에 가까운 것이다. 다만, 새롭게 어휘를 생성해 내는 과정이 문법적인 규칙과 연관되므로 국어지식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맞춤법 교육과의 연관이 역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된 맞춤법 조항은 제19항, 제21항, 제27항으로 이 단원의 부분적인 부분과 연관되므로 단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피기보다 소단원의 활동 중

하나에 맞춤법 조항을 첨가해 참고하는 형식으로 충분하리라고 본다.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이 단원에서 맞춤법 조항은 이 단원의 활동③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겹으로 볼 때 맞춤법 조항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과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이 복합어를 만드는 이 소단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 속하는 각 조항들은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 규칙으로는 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지금 다룰 조항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맞춤법 영역에서 다루거나, 더 심화된 문법 규칙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의 학습활동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활동③의 내용 자체는 기존의 것과 같고, 여기에 맞춤법 조항을 보충하였다.

활동③ 다음 낱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자.

- | | |
|--------------------|--------------------|
| (ㄱ) 밤낮, 앞뒤, 물병, 별관 | (ㄷ) 햇병아리, 햇보리 |
| (ㄴ) 군밤, 뛰놀다, 벗어나다 | (ㄹ) 넓이, 깊이, 집게, 베개 |

1. 위의 낱말들의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가.
2. 위의 낱말들의 형태소들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3. (ㄱ), (ㄴ)의 낱말을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 보자.
4. (ㄷ), (ㄹ)의 낱말을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보자.

☞ [정리]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어근, 접사의 개념 정리

▶ 복합어는 서로 떨어진 개별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그 과정에서 글자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서로 본래의 모양을 지키려 하기도 한다. 어떻게 써야 바른 표기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들을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①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②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해설) ‘겹-쟁이, 일-꾼, 선생-님’ 등의 단어는 뒤에 접미사가 붙은 말이므로 ‘겹’, ‘일’, ‘선생’의 원래 모습을 밝혀 쓴다. ‘베개, 집게’등의 단어는 ‘베다, 집다’의 어간에 접미사 ‘개, 게’가 붙은 것으로 역시 원래 모습을 밝혀 쓰는 것이다.

다만, ‘넙따랑다(←넙)’나 ‘할짝거리다(←할)’처럼 원래의 겹받침 발음인 ‘넙, 할’이 아닌 다른 식으로 발음되는 글자나 ‘넙치(←넙?)’, ‘올무(←올?)’처럼 글자 형태에서 그, 원형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3] ‘이[齒, 齏]’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해설) ‘꽃잎(꽃+잎), 물병(물+병), 뛰놀다(뛰다+놀다)’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햇병아리(햇+병아리), 풋고추(풋+고추)’처럼 접두사 ‘햇, 풋’과 합성된 글자는 그 원래 모습을 밝혀 적도록 한다.

그런데 ‘한(大)’에서 온 ‘할아버지’처럼 어원은 확실하나 오래도록 소리가 변한 대로 쓰여 굳은 것은 변한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골탕, 골병’처럼 어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다.

특이사항으로 ‘이’합성어에서 ‘덧니, 사랑니, 젓니’ 등 ‘니’나 ‘리’로 발음난다면 소리대로 표기한다.

※ 모둠원이 함께 낱말 퍼즐을 풀어보자.

	친	동	생		인			
			머		사	진		
햇	병	아	리			흙	탕	물
밤				덧	신			고
		어	금	니		풋	내	기
	마		반			사		
베	개		지	구		과	일	죽

1. 문제를 보고 퍼즐의 빈 칸을 채워 넣어보자.

2. 복합어를 찾아보고, 합성어의 경우 원래의 뜻을 파악해보고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나 접미사를 분리해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춤법 조항의 해설이다. 맞춤법 조항이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법 조항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를 통해 ‘바른 글자 쓰기의 원리’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맞춤법 조항에 설명과 예시를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퍼즐 풀이 활동을 더하였는데, 낱말 퍼즐 풀이 활동은 단어를 생성해내는 접두사, 접미사를 발견해내는 활동을 강조함과 동시에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맞춤법 조항이 원래의 뜻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 변형되어 굳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또한 염두에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3-1학기 4단원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1) 수업 지도안

이 단원은 ‘우리말의 바른 발음’과 관련해 음운의 변동현상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소단원은 음운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말의 음절 끝소리 자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살펴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맞춤법 조항인 ‘제7항 ㄷ소리 받침’도 함께 제시한다.

대단원명	4. 음운의 변동		소단원명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차시	1/4
학습 목표	① 우리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해한다. ②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③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출석 확인	인사, 출석 점검		교사의 말을 경청하며 듣고 대답한다.	5	동기유발을 위한

	동기 유발	유행가 가사를 ‘발음대로’ 적은 그림 자료를 ppt로 제공			그림 자료준비
	목표 제시	PPT로 관심을 모으며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함께 따라 읽는다.		
전개	준비 학습 (발표)	·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 되새겨 본다.	·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발표한다.	3	교사는 모둠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힌트나 충고를 주도록 한다.
	내용 이해	· 자신이 좋아하는 시나 노래가사, 소 설의 일부분 등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도록 한다. · 다 쓴 것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각 낱말의 끝소리가 어떻게 발음 되 는지 알아보는 활동	· 자유롭게 떠오른 글 을 발음에 유의하며 써보도록 한다. · 글을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특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7	
	협동 학습	· 모둠별로 친구들이 쓴 자료와 비교 해 보며 낱말의 끝소리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 모둠원이 함께 자료를 비교해 보며 한글자음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것에 동그라미 하는 활동 · 모둠별로 발표를 한다.	· 모둠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한다.	10	
전개 2	1차 학습 내용 확인	· 음절 끝소리 규칙이 가장 잘 드러 나는 모듬의 자료를 선정해 반 전원 이 함께 보며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정리해 본다. · 음절 끝소리 규칙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단어에 적용해 본다.		10	받아쓰기 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닌 다른 문법규칙 때문에 헛갈리지 않도록 한다.
	협동 학습	· 문장단위의 받아쓰기 활동 · 모듬원 간에 받아쓰기 결과를 돌려 보고 맞춤법 조항을 정리해 본다. · 교사가 관련 맞춤법 원리를 PPT로 보기 쉽게 제시해 준다.	· 개인별로 받아쓰기를 한 후 모듬원의 결과 물을 돌려보는 과정에 서 자신의 것과 스스 로 비교해 본다.	5	
정리	2차 내용 확인	· 가장 많이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다 함께 고쳐 보고 음절 끝소리 규칙과 맞춤법 조항을 비교해 본다.	· 자유롭게 질문을 하	5	

	수업 정리	·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한다.	계하고 교사는 성의껏 대답한다.		
--	----------	--	----------------------	--	--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이 단원을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해 놓았다.

- ① 낱말 소리내어 읽어보기
- ② 각각의 자음으로 구성된 낱말의 발음 써 보기
- ③ 음절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에 동그라미 치기
- ④ 겹받침의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써 보기.
- ⑤ 정리: 우리말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그 이외의 받침은 이 7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런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맞춤법 학습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준비하였다.

- ①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 되새겨 보기.
- ② 자신이 좋아하는 시나 노래가사 등을 소리나는 대로 써 보기
- ③ 낱말의 끝소리가 어떻게 발음 되는지 확인해 보기.

갑작스럽게 맞춤법 조항이 등장하여도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수업 전에 맞춤법에 대해 가볍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라면 맞춤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나 이 단원은 이미 맞춤법 단원이 제시된 후이므로 되새기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맞춤법을 의식하며 수업할 수 있게 한 뒤, 다음으로 문법 규칙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기존의 교과서처럼 ‘밖, 간, 낱, 낮, 히을, 숲’등의 개별 낱말을 제시하기보다 문장 차원에서 예문을 제시한다. 개별 단어의 경우 그 단어의 발음에만 집중하여 살필 수 있어 좋지만 너무 지루한 인상을 주고 예시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친숙한 문장을 읽으며 발음을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 ① 모둠별로 친구들이 쓴 자료와 비교해 보며 낱말의 끝소리 살펴보기
- ② 모둠원이 함께 자료를 비교해 보며 한글자음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것에 동그라미 하기
- ③ 선생님과 함께 한 모듬의 자료를 선정해 음절 끝소리 규칙 정리하기
- ④ 음절끝소리규칙을 개별 단어에 적용해 보고 문장단위의 받아쓰기 활동하기
- ⑤ 모듬원간에 받아쓰기 결과를 돌려보고 맞춤법 조항을 정리하기

소집단 모듬을 구성하여 ‘음절 끝소리 규칙’을 살펴보고, 다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모듬 활동이라고 해도 간단한 규칙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다함께 규칙을 정리한 후 바로 활동으로 들어간다.

개별 단어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보는 것은,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맞물려 혼란을 줄 수도 있는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다. 수업 첫 활동에서는 흥미와 동기 유발의 목적도 함께 작용해 문장으로 보았지만 마지막에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장 단위의 받아쓰기는 문장 내에서 발음되는 음운 환경에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받아쓰기 후에는 다함께 결과를 정리해 보고 맞춤법 조항을 제시해 준다.

● 받아쓰기 활동

- ㉠ 오늘 낮에 숲에 있는 여덟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었다.
- ㉡ 돛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 ㉢ 부엌에 있던 내 뿔의 과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뎡저고리 뎡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릇 사뎡 얼핏
 자칫하면 뎡[衆] 옛 첫 헛

☞ 이 단어들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뎡저고리, 뎡자리, 엇셈’ 등의 표기가 되지만, 옛날부터 받침을 ‘ㅅ’으로 적어 왔으므로 관습을 존중하여 ‘ㅅ’으로 적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제7항 ㄷ소리 받침’ 조항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예와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예들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학습자들이 지금껏 배운 지식에 비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음이 되는 7개의 자음 중 ㄷ으로 소리가 나는데 받침이 ㅅ인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이다’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하다. 어쨌든 이 단위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발음과 표기의 차이’에 대한 확인에 더해서 ‘거기에 따른 바른 표기는 어떠한가.’를 한 번 더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 3-1학기 4단원 (2) 음운의 동화

(1) 수업 방안

이 단원은 음운의 동화 현상 중 자음동화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음 동화나 모음조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자음동화의 경우 비음화,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음운 변동 현상을 학습자 수준에 맞춰 내용을 압축하다보니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예시가 등장하기도 한다.

‘백록담’을 발음대로 표기하면 [백녹담]이 된다. ‘백’의 ‘ㄱ’이 ‘록’의 ‘ㄹ’을 만나 둘이 ‘ㅇ’과 ‘ㄴ’으로 변하는 자음동화 현상에 이어 ‘록’의 ‘ㄱ’이 ‘담’의

‘ㄷ’을 만나 ‘ㄷ’으로 변하는 경음화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이다.³³⁾

이 단원에서 자음동화는 맞춤법 조항과 큰 관련을 찾기 어렵고, 자음동화를 배우는 학생들은 바른 표기의 문제보다 표기에 대한 바른 발음에 대해 더욱 고심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활동②를 가지고 학습 활동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활동② 구개음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다음 낱말의 발음을 []안에 적어 보자. 그리고 어느 음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어 보자.

굳이	→ [구디]	→ [구지]	
만이	→ [마디]	→ [마지]	(ㄷ) → (ㅈ)
미닫이	→ [미다디]	→ [미닫이]	

같이	→ [가티]	→ [가치]	
겉이	→ [거티]	→ [거치]	(ㄷ) → (ㅈ)
피붙이	→ [피부티]	→ [피부치]	

2. 위 낱말들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은 ‘ㅣ’모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 (1) 위의 단어들을 발음해 보며 ‘ㄷ, ㅌ’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 살펴보기
- (2) 위의 단어들을 발음해 보며 ‘ㅈ, ㅊ’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 살펴보기
- (3) ‘ㅣ’모음 발음시의 혀의 위치를 살펴보고 [구디]와 [구지] 중 어느 것이 더 편한지 생각해 보기

33)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에 대해 ‘중학교에서 경음화 현상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되도록 언급을 짧게 하고 넘어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경음화 현상을 고등학교 심화 단계로 넘겨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음화 현상과 함께 비교하며 배워야 할 사잇소리 현상 역시 그러하다. 중학교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규칙 범위의 협소함은 12학년으로 구성된 우리 교육 과정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재구성해 보도록 한다.

3. 'ㄷ, ㅌ' 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낱말을 더 찾아 적고, 발음해 보자.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 으로 적는다.

☞ 학습지

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른 발음으로 옮겨 써 보자.

• 해돋이를 보러 굳이 강릉까지 갔다. → _____

• 우표를 붙이지 않은 편지 → _____

2. 다음 문장에서 틀린 표기를 바르게 고쳐 보자.

• 좌우로 밀어 열고 닫는 문을 미다지문이라 하고, 앞뒤로 밀고 당기는 문을 여다지문이라고 한다.

• 나는 집안의 마지로서 부모님과 가치 동생의 병간호를 했다.

기존의 교과서 학습활동인 활동②의 1, 2, 3번은 직접 발음해 보고, 음운변동의 원인인 발음상의 편의를 직접 느껴 보도록 활동을 구성해 놓았다.

구개음화 역시 자음동화와 마찬가지로 발음상의 변화가 주가 되지만, 자음동화와 달리 언중들은 구개음화의 표기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교과서에도 다루고 있지만 '굳이'를 [구지]로 표기하는 것은 언중들이 생각보다 많이 범하는 오류다. 자음 동화보다 훨씬 발음이 쉽게 나고 간단한 글자다 보니 오히려 맞춤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평소에 자주 쓰는 구개음화된 단어들을 이용하여 바른 맞춤법을 연습해 보면 좋은데, 맞춤법 조항의 경우 구개음화의 원리와 그 모습이 거의 같으므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제6항의 요지는 구개음화 현상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변동 현상이므로 발음상 구개음화 현상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표기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춤법 조항 자체는 어렵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구개음화의 발음과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주의를 주고 학습지를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한다. 학습지는 바른 발음으로 고치는 문제와, 바른 표기로 고치는 문제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마. 3-1학기 4단원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1) 지도안

대단원명	4. 음운의 변동	소단원명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차시	3/4
학습 목표	①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② 음운의 축약과 탈락 현상을 이해한다. ③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학생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출석	인사, 출석 점검	교사의 말을 잘 듣고 발음에서 생기는 변화를 파악해 본다.	5분	동기유발 자료준비
	동기 유발	축약과 탈락 현상 전의 음운의 모습을 제공하고 빠르게 읽어보게 한다.			
	학습 목표 제시	PPT로 관심을 모으며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함께 따라 읽는다.		
전개 1 활동 ①	준비 학습	· 음운의 축약의 예시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 단어들을 발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해 보도록 한다.	· 글자의 형태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며 제시된 단어들을 편안하게 발음해 본다.	3분	
	내용 이해	· 자음, 모음의 다양한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을 제시하여 소리나는 대로 써보게 하고 예시의 도움을 받아 그 속에서 음운 축약의 규칙을 찾아보게 한다.	· 책에 나온 예시를 참고로 하여 음운 축약의 규칙을 찾아 본다.	7분	

	맞춤법 협동 학습	· <한글 맞춤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의 규칙들을 먼저 준말의 예시로 제시하여 모둠원들이 의논해 본말의 형태를 짐작해 보게 한다.	· 모둠원들과 함께 발음을 해보며 어떤 단어가 줄어서 생긴 말인지 생각해 본다.	7분	교사는 모둠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힌트나 충고를 해준다.
	학습 내용 확인	· 선생님과 함께 음운 축약 현상을 PPT 자료로 함께 정리해 본다. 맞춤법 조항을 다함께 살펴보고 모둠이 낸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게 한다.	· 학습내용의 정리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5분	
전개 2 	협동 학습 통한 내용 이해	· 음운의 탈락 예시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 단어의 뜻을 말해 보게 한다. · 단어의 뜻을 통해 본래 형태를 추리해 보도록 한다. · 본래 형태와 음운 탈락 이후의 형태를 각각 발음해 보고 어떤 것이 더 발음하기에 편한지 생각해 본다.	· 모둠원들과 함께 본래 형태를 유추해 보고, 현재의 형태와 비교해 보며 왜 음운이 탈락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10 분	
활동 ②	학습 내용 확인	· 음운 탈락 현상을 PPT 자료로 함께 정리한다. 맞춤법 조항 제28항, 29항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며 읽어보게 한다.	· 수업의 정리 설명을 주의깊게 듣는다.	5분	
정리	수업 정리	·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한다.	·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하고 교사는 성의껏 대답한다.	3분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이 소단원은 <한글 맞춤법>의 7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차시 내에서 다루기엔 많은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곱 조항의 내용 자체가 그리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고, 맞춤법 조항의 원리와 직결되는 단어의 특성상 맞춤법 조항을 통해 올바른 표기를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의미가 더 크므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활동① 음운의 축약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음운의 축약의 예시 단어를 보고 발음상의 변화를 말해 보기

하늘이 <u>파랗다</u>	<u>빨갳게</u> 타는 불	음식에 돌이 <u>씹히다</u> .
인형에게 옷을 <u>입히다</u>	살이 <u>쪼다</u> .	내 뭇이 너무 <u>많다</u> .
<u>웁지</u> , <u>그렇게</u> 하면 되겠구나.		나는 네가 <u>좋다</u> .
꽃이 <u>폄다</u> .	해가 <u>쪼다</u> .	온 세상이 <u>하얗다</u> .

2. 다양한 음운축약 현상의 예시 자료들을 소리나는 대로 써보고, 그 속에서 음운 축약의 규칙을 찾아보기

▶ 음운 축약 현상의 규칙

낱말	발음	음운의 축약
종다	[조타]	ㅎ + ㄷ → ㅌ

3. <한글 맞춤법> 제31항부터 제36항에서 준말의 예시를 제시하여 본말의 형태를 짐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 음운 축약 현상을 살펴본다.

준말	본말
영희는 집에 <u>갔다</u> .	()
어제 드디어 화분에 꽃이 <u>폄다</u> .	()
이것 <u>봐!</u>	()
거기 <u>봐뒀</u> .	()
아프다고 하길래 죽을 썬 <u>왔어</u> .	()
너무 힘들었지만 참고 <u>견뎠다</u> .	()
어릴 땐 늘 감기로 병원에 <u>다녔다</u> .	()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와/워, -왔/-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6항 모음 ‘ㅣ’ 뒤에 ‘-어’가 와서 ‘ㅌ’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기존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음운 축약의 예를 들어 주고 다른 단어에서도 음운 축약의 규칙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같다. 새롭게 구성하면서는 맞춤법과 더불어 축약된 형태에서 본래 형태를 짐작해 보게 하면서 준말에 대한 활동을 더하여 예시를 첨가하였다.

3번의 경우는 학생들이 맞춤법 조항을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활동을 하고 난 후 맞춤법 조항을 읽어 보고, 다시 거기에 맞춰 단어를 준 형태와 본 형태로 적어 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활동② 음운의 탈락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음운의 탈락 예시 단어를 보고 단어의 뜻 말해 보기
2. 단어의 뜻을 통해 본래 형태를 추리해 보도록 한다.

음운 탈락 단어	단어의 뜻	본래 형태
마소	말과 소	말 + 소
소나무	()	()
따님	()	()
둥그니	()	()

▣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소(말-소), 소나무(솔-나무)와 같은 단어들은 끝소리의 ‘ㄹ’이 탈락하고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처럼 원래 뜻에는 있었던 ‘ㄹ’이 발음할 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음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사흔날(사흘-날), 손가락(술-가락), 이틀날(이틀-날), 선부르다(설-부르다)와 같은 단어들은 앞에 위치한 단어의 끝소리가 'ㄹ'로 끝나고,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와 만나 'ㄷ'소리로 변한 예들이다. 오랫동안 이렇게 발음되어 온 단어들로, 표기 역시 소리대로 한다.

음운의 탈락은 음운의 축약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내용이 좀더 복잡하고 본래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는 단어들도 가끔 있다. 재구성한 학습활동은 음운 탈락된 상태의 단어의 뜻을 보고, 그 원래 형태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맞춤법 조항을 굳이 문제 형태로 끌어들이지 않은 것은 내용은 아예 같은데, 맞춤법 조항의 설명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활동에 적용되는 맞춤법은 원리가 존재하지만, 사실 원리가 없어도 언중들이 단어의 본래 형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굳이 어려운 설명을 끌어오지 않고, 수업의 마지막에 교사가 보충 자료 형식으로 보여 주면 충분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때 본래 형태가 쉽게 파악되는 단어의 경우 본래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이며 음운 탈락된 형태가 올바른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한다.

바. 3-2학기 5단원 (2) 품사의 특성

(1) 수업 방안

이 단원은 학습자들이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 단어를 특성에 맞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품사 분류의 필

요성, 기준을 이해하고 각 품사의 특성을 알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그 중 소단원(2)에서는 품사의 종류와 품사의 문장 내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관련 맞춤법 조항으로는 용언과 조사에 대한 제14항, 제15항, 제18항이 있다. 제18항을 제외하고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맞춤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가볍게 끝낼 수 있다. 제18항은 불규칙 용언을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예를 교과서에서 간단히 확인시켜 주며 이해하게 하는 정도로 족하다.

(2) 학습활동의 개선점과 기대되는 효과

활동② 동사와 형용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문장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기본 형태를 적어 보자.
2. 문장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그 기본 형태를 적어 보자.

☞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3.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말해보고,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자.

먹다	→	•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
(동사)		•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것이다.
		• 점심을 맛있게 먹는구나

☞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그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 용언의 바른 표기를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먹다’라는 단어는 ‘먹고’, ‘먹어’, ‘먹으니’처럼 여러 모습으로 활용되는데, 이

때 어간인 ‘먹-’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변화한다. 만약 ‘먹어’를 [머거]라고 표기할 경우 1, 2번의 활동처럼 단어의 기본 형태를 찾기 어려워 의미과약이 어렵다. 그러므로 표기할 때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발음되어 표기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많은 용언들이 활용을 할 때 자신의 어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되지만, 예외의 경우도 많다. 제18항에서 말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우	대표적인 예	활용 형태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놀다	‘노니’, ‘놓니다’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낫다	‘나아’, ‘나으니’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
어간의 끝 ‘ㅌ, ㅍ’이 줄어질 적	끄다	‘꺼’, ‘졌다’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	‘걸어’, ‘걸으니’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	굽다	‘구워’, ‘구우니’
‘하다’ 동사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어간의 끝 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푸르다	‘푸르러’
어간의 끝 음절 ‘ㄹ’의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구르다	‘굴러’, ‘굴렀다’

※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적고, 활용 형태를 써 보자.

[예] 가다 (동사) ⇒ 가니(-니) / 가고(-고) / 가서(-서)

1. 등글다 () ⇒
2. 굶다 () ⇒
3. 까맣다 () ⇒
4. 크다 () ⇒
5. 묻다 () ⇒
6. 무겁다 () ⇒

- | |
|------------------------|
| 7. 굽다 () ⇒ |
| 8. 누르다 () ⇒ |
| 9. 오르다 () ⇒ |

제15항과 제18항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초·중등학교 과정의 학습자들이 많이 틀리곤 하는 부분이다. 독서력과 연관된 부분도 많은데, 특히 자신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보지 못한 용언의 경우 활용형을 잘못 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용언을 쓸 때 어간의 형태를 보존하며 문법에 맞게 어미를 쓰는 것이 원칙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접 활용형을 써보는 활동을 준비하여 연습해 보도록 하였다.

활동④ 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 문장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자.

개 가 사람 을 물었다.

()()()()()
- 다음 문장에서 진하게 쓴 부분이 하는 구실에 대하여 말해 보자.

(1) 개가 소를 물었다. (2) 개를 소가 물었다.

 - 문장 (1)과 (2)는 의미가 같은가, 다른가?
 -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조사**라고 한다.

▶ 조사 사용 시 유의할 점을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알아보자.

제14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 ‘밤에 떡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밤에’는 [바메], ‘떡을’은 [떠글]이라고 발음되지만, 표기할 때는 체언도 조사도 반드시 원래 형태대로 쓴다. 이것은 글

을 읽을 때 의미 파악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발음대로 ‘바메
떠글 먹는다.’ 라고 한다면 체언과 조사의 경계가 모호해져 한 줄의 문장을 이
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체언과 조사는 늘 기본 형태를 지켜서 적도록 한다.

※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을 듣고, 다음 문장 속의 () 안에 바르게 써 보자.

1. 철수는 (집에) 오자마자 곧 다시 (밖으로) 나갔다.
2. (늦잠을) 자서 늦은 (값을) 친구들에게 톡톡히 치렀다.
3. 영화는 (밥도) 싫고 (국도) 싫다며 늘 (떡만) 먹는다.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적
어도 용언의 활용정보다는 많이 틀리지 않는데, 그만큼 체언은 그 독립성
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왜 구별해서 써야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좀더 ‘조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V. 결론

어느 때보다 한글 오용이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때이다. 언제 부터인가 일상에서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까지 한글 오용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걱정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말’은 한 사회를 대변하고 나타내는 것인 만큼,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맞춤법 오용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 교육의 역할 또한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그 중에서도 맞춤법 교육이 가장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I 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는데, 맞춤법 교육의 교육과정상의 위치와 학생들의 학습수준,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II 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절충을 이루게 된 변천사와 구성 원리를 살펴 맞춤법 교육의 토대를 살피고,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어지식 영역’ 단원이 맞춤법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교육과정 상에서 맞춤법 교육을 어떠한 내용과 구성으로 마련해놓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교과서에 얼마나 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알게 된 현행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로 나누어 다루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자체에서 맞춤법에 대한 내용 선정이 부족하고 교과서에서는 맞춤법 교육을 위한 고유의 장을 설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맞춤법 조항의 선정 기준도 불확실함이 나타났다. 또 타 영역과 연계되지 않고 오직 한 단원 내에서만 맞춤법의 원칙과 항목들이 협소하게 다루어져 학습자들이 언어규정 제반에 연계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맞춤법 학습이 그 근본 원리가 되는 국어 지식 전반과 격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활동이 맞춤법 조항을 내세우기보다 ‘예시 제시’의 단계에서 개별 단어 고치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맞춤법 조항을 토대로 하여 갖가지 예를 충분히 연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단어별로 암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맞춤법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맞춤법 단원 내의 학습활동도 오류의 예시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보니 학습활동 간의 수준 난이도가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 보고, III장 3절에서는 먼저 맞춤법 교육의 대상이 되는 맞춤법 조항을 선정하여 교육 목적과 대상 및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맞춤법 교육을 국어지식의 관련 영역으로 많은 부분 이동시켜, 맞춤법을 원리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그 연계 방안을 탐구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의 주가 되는, 국어지식 영역의 학습활동 개선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을 다루었다.

먼저 1절에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 이를 최대한

감안하고, 2절에서 맞춤법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활동 개선 방안을 살폈다. 그리고 3절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해당 단원을 통해 재구성한 학습활동 지도의 실재를 수업 방안, 혹은 필요한 경우 지도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맞춤법 교육의 문제가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맞춤법 교육을 어느 학년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고민과 연구 또한 필요하다. 최소한의 국어 지식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고 나서 맞춤법을 배워야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맞춤법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는 음운론과 형태론의 많은 규칙들이 고등학교 심화 과정으로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맞춤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교육 문제도 있다. 표준어의 표기가 곧 맞춤법이며, 맞춤법은 표준 발음으로 ‘소리대로’ 읽을 때 쉽게 파악되는 조항도 많다. 그런데 맞춤법을 포함하여 이 분야는 국어 지식 영역에서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지역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경우 표준 발음의 완벽한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교육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교육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지역어의 보존 문제까지 합해 국어지식 영역에서 앞으로 더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영역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내에서 줄어든 비중과도 관계가 깊다. 국어지식 영역의 축소가 곧 전체 국어 교육은 물론 결과적으로 다른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지식 영역은 국어 교육에서도 특히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국어과 학습은 물론 다른 교과 학습에도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국어과가 도구 교과로 그 역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문 규범의 지도 비중 확보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맞춤법 교육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선되어 더 효율적인 맞춤법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애경(2002), 「한글 맞춤법의 수준별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재용(2001), 「진주교대생들의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학
생생활연구 Vol.9
- 교육 인적 자원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교육부 고시 제
1997-18호
- 교육 인적 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고등학교 국어 상·하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1-1,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1-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2-1,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2-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3-1,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 인적 자원부(2007) 중학교 생활 국어 3-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구정모(2005),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 및 맞춤법 교육의 문제 - 고등학
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어연구소(1997),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학교과서주식회사
- 권구천(1999),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 실태와 문제점」, 목원어문학
Vol.17
- 김귀옥(1984),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 - 현행 한글 맞
춤법과 맞춤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정(2000), 「한글 맞춤법 인지 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태(2004), 「대학생들의 맞춤법 인식과 실제」, 學生生活研究 Vol.30
- 김효진, 구본관(2004), 「중학교 3학년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제8권 3호
- 김희선(2006),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의한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찬연(2005), 『한글 맞춤법의 이해』, 월인
- 리의도(1999),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 박덕유(2003), 「국어 어문규범의 인지 실태와 교육 필요성」, 새국어교육
Vol.- No.66
- 박문제(2001),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순(2005), 『국어문법 교육론』, 박이정
- 박정아(2007), 「중학생의 한글 맞춤법 인지 실태 분석 및 교수·학습 방안 연
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현선(2005),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보경(2006), 「대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제39집
- 위호정(1990), 「중학생의 정서법 오류 분석 및 그 교정을 위한 실험 연구
- 형태음운론적 오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교육대학원
- 이관규(2000), 「학교문법교육의 현황」,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 이승주(1994),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맞춤법 표기 및 표준어 사용 실태

-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숙(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 교육한글 Vol.- No.16-17
- 이윤희(2006), 「간판 언어 분석을 통한 국어사용 실태 조사 : 전주시내 간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영(1998), 「중등학교에서의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 정달영(2002), 「현행 교육과정상의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 정범순(1999), 「중학생의 맞춤법 오용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영희(2003), 「생태학적 언어관에 의한 국어 어휘 교육」, 『배달말33』, 배달말학회
- 한수진(2004),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 9학년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성현(2006),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한글 맞춤법 오류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